

주간 평가원 특별판 해설

|  
|

조남희 국어

2015.11B / 아와 비아를 통한 신채호의 사상 이해.

역사가 신채호는 역사를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 과정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신채호의 사상(=관점)을 밝히며 지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채호에게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 과정입니다. '아'와 '비아'가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으니, 제시한 그대로 신채호의 관점을 확보(아와 비아의 투쟁이 역사군)하고 독해를 진행했으면 충분합니다.

그가 무장 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한 독립운동가이기도 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의 이러한 생각은 그를 투쟁만을 강조한 강경론자처럼 비춰지게 하곤 한다. 하지만 그는 식민지 민중과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 간의 연대를 지향하기도 했다.

신채호는 단순히 투쟁만을 강조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신채호는 식민지 민중과 제국주의 속에서도 그를 반대하는 민중 간의 연대는 지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채호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과의 연대는 지향했다.'는 것은 지문에서 대놓고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이므로 <신채호 = 제국주의 반대 민중은 연대>는 확보하고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그의 사상에서 투쟁과 연대는 모순되지 않는 요소였던 것이다.

여기서 이게 왜 모순되지 않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실전에서 즉각적으로 이해되지 않았다면, 제시된 그대로 <투쟁, 연대 모순 아님> 정도로 '납득'은 하고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 코멘트

생각해보면 당연한 말입니다. 투쟁의 대상인 제국주의 국가에서도 연대할 대상이 있고, 애초에 신채호가 '투쟁만을 강조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제시했었으니까요. 우리의 목표는 실전에서도 이 정도의 내용이 '이해'될 정도의 뇌지컬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전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납득'은 한 상태로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투쟁과 연대는 모순되지 않는다)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사상의 핵심 개념인 '아'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투쟁과 연대가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를 이해해야 합니다. 즉 '아'의 개념에 대한 빌드업이 진행된 후, 신채호의 사상에 대한 이해가 진행될 것입니다. 핵심인 신채호의 사상(투쟁과 연대는 모순 안됨)을 상기한 상태로 '아'에 대한 정보를 세팅해봅시다.

tip - 빌드업

이는 빌드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해준 문장입니다. 글의 방향성을 제시해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신채호의 사상(=관점, 즉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 '아'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빌드업 구간은 정보를 세팅하는 용도로 글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핵심을 상기한 상태로' 제시된 정보들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ex. 19.09 CDS 프리미엄 ⇒ CDS 프리미엄을 이해하기 위한 신용 위험, CDS 개념 세팅.

신채호의 사상에서 아란 자기 ㉠분위에서 자신을 ㉡자각하는 주체인 동시에 항상 나와 상대하고 있는 존재인 비아와 마주 선 주체를 의미한다.

'아'는 자신의 기준에서 자신을 자각하며, 자신과 대립하는 비아를 마주하는 주체입니다. 말이 고품격스럽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스스로를 돌아보고, 상대를 마주 본다는 것이죠. <아 = 스스로를 자각, 상대를 마주 봄> 정도로 정리된 상태로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tip - 당겨 읽기 (관형절도 당겨 읽어라.)

항상 나와 상대하고 있는 존재인 '비아'

아마 아와 비아가 어휘 자체에서도 서로 대립한다는 것이 너무 극명해, 의식해서 관형절을 당겨 읽지 않아도 독해에는 지장이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특정 대상을 수식해주는 관형어(절)이 있다면, 대상만을 확보하며 단순히 넘어갈 것이 아니라 관형어(절)과 대상 모두를 하나의 의미로 확보해주며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소한 습관이지만 그 영향력은 사소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독해 태도이므로 꼭 습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자각하는 누구나 아가 될 수 있다는 상대성을 지니면서 또한 비아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아가 생성된다는 상대성도 지닌다.

'아'의 정의를 확보했다면, 자연스럽게 납득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애초에 '아'는 자신을 자각하며, 비아와의 관계 속에서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자각하면 '누구나' 아가 될 수 있으며, 비아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생성되는 것이죠. '누구나'와 '비로소' 같이 한번 더 강조된 포인트를 제외하면 그냥 재진술 수준입니다. 재진술된 부분에서 새롭게 추가된 '누구나', '비로소' 정도를 인식하고 독해를 진행했으면 충분합니다.

신채호는 조선 민족의 생존과 발전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조선 상고사』를 저술하여 아의 이러한 특성을 규정했다.

신채호가 아의 특성을 규정한 이유는 조선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이는 아의 특성을 규정한 신채호의 '목적'입니다. 기술 지문에서 목적이 주로 중요하지만, '목적'은 항상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아의 특성은 조선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규정했군> 정도는 확보하고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 코멘트

'목적'은 확보해야 할 핵심입니다.

그는 아의 자성(自性), 곧 '나의 나됨'은 스스로의 고유성을 유지하려는 항성(恒性)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적응하려는 변성(變性)이라는 두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

자성은 항성과 변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성 = 항성 + 변성>

<항성은 스스로의 고유성을 유지하는 것 ↔ 변성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적응하는 것>입니다. 대놓고 항성과 변성을 구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립쌍을 사용해서 구분해주고** 있으니 명확하게 확보하고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tip - 대립쌍

스스로의 고유성 유지 /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적응

이 둘은 애초에 명확하게 대립되는 지점으로 지문에서 세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 제시되는 정보가 이 대립쌍에 의해 진술된다면 우리는 이를 필히 확보하고 가야 합니다.

실제로 대립쌍에 대한 이해는 지문 이해와 문제 풀이 시 굉장히 핵심적으로 기능하는 부분입니다. 필히 민감한 반응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아는 항성을 통해 아 자신에 대해 자각하며, 변성을 통해 비아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식을 갖게 되는 것으로** ㉔ **설정**하였다.

여기서도 항성과 변성을 대립쌍을 통해 대놓고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항성을 통한 아 자신 자각 ↔ 변성을 통한 비아와의 관계 속 자기 의식> 앞선 부분처럼 대놓고 둘에 대한 구분을 요구하고 있으니 명확하게 확보하고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성이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한다고 하였다.

<자성 = 항성 + 변성>입니다. 여기서 변성이 환경에 변화에 대응하여 적응하는 것이니 자성이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납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신체호는 아를 소아와 대아로 구별하였다.

신체호가 앞서 아의 특성이자성에서 항성과 변성을 구분했는데, 여기서는 아 자체를 소아와 대아로 구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서 독해를 진행한 것처럼 **소아와 대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잡으며** 독해를 진행해봅시다.

그에 따르면, 소아는 개별화된 개인적 아이며, 대아는 국가와 사회 차원의 아이다.

일단 기본적인 소아와 대아의 개념을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소아는 개별화된 개인적 아 ↔ 대아는 국가와 사회 차원> 이 역시 대놓고 대립쌍을 통해 구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구분해주고 독해를 이어갑시다.

소아는 자성은 갖지만 상속성(相續性)과 보편성(普遍性)을 갖지 못하는 반면, 대아는 자성을 갖고 상속성과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

이제는 소아와 대아의 속성을 명확하게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이 역시 대놓고 구분해준 부분이라 <소아 : 자성O, 상속성X 보편성X ↔ 대아 : 자성O, 상속성 가질 '수', 보편성 가질 '수'>와 같이 정확하게 구분해주고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tip - 비교 · 대조 쌍.

비교 · 대조 쌍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문제로 출제되기 마련이고, 지문 독해 시 이러한 부분을 미리 파악하고 독해를 진행한다면, 지문 이해는 물론이고 문제 풀이까지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성이란 시간적 차원에서 아의 생명력이 지속되는 것을 뜻하며, 보편성이란 공간적 차원에서 아의 영향력이 ㉔과 급되는 것을 뜻한다.

앞서 상속성, 보편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었으니, 우리는 그것을 워딩 자체로 확보하고 독해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상속성과 보편성의 개념도 '대립쌍'을 통해 명확하게 구분시켜 주세요. <상속성은 시간 차원 ↔ 보편성은 공간 차원>과 같이 정확하게 구분해주고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상속성과 보편성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데, 보편성의 확보를 통해 상속성이 실현되며 상속성의 유지를 통해 보편성이 실현된다.

이제는 상속성과 보편성의 관계를 제시해줍니다. 보편성이 있어야 상속성이 실현되며, 상속성이 유지되어야 보편성이 실현됩니다. '관계'는 항상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 코멘트

그런데 말이 약간 말장난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보편성을 확보해야 상속성이 실현되고, 상속성이 유지되어야 보편성이 실현된다? 만약 저였다면 이렇게 이해와 별개로 말장난 같은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 이에 불안하기보단 이해하되, 체크 정도는 해놓고 물어보면 확인하러 온다는 인식을 가진 뒤 독해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대아가 자성을 자각한 이후,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통해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할 수 있다.

대아는 자성을 자각한 '후' 항성과 변성을 통해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합니다. 즉 일종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일단 자성 자각이라는 조건 충족 이후 항성, 변성을 통해 상속성, 보편성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만약 대아의 항성이 크고 변성이 작으면 환경에 순응하지 못하여 멸절(滅絶)할 것이며,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환경에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우월한 비아에게 정복당한다고 하였다.

'항성'이 크고 '변성'이 작으면 환경에 순응하지 못하여 멸절합니다. 그죠 '변성'의 개념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해서 비아에게 정복 당할 것입니다. '항성'은 고유성을 유지하는 것이니까요. **항성과 변성의 개념을 당겨 읽었다면 자연스럽게 납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tip - 당겨 읽기

여기서도 우리는 지문 초반 구체적으로 서술된 개념, 응당 확보했어야 하는 개념(여기서는 앞서 서술해준 항성과 변성)을 확보한 뒤 이후 해당 내용을 당겨 읽어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결했어야 합니다.

독해를 잘한다는 것은 결국 **'얼마나 지문을 잘 이해하며 읽었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의미를 당겨 읽는 기본적인 습관, 문단과 문단의 뜻을 당겨 읽는 독해를 지향해야 합니다.

당겨 읽기 자체는 사소한 습관이지만 그 영향력은 사소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독해 태도이므로 꼭 습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아(지금까지 서술한 아에 대한 정보)의 개념을 통해 우리는 투쟁과 연대에 관한 신채호의 인식(투쟁, 연대 모순 아님)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서술한 '아'의 개념을 통해 투쟁과 연대에 관한 신채호의 인식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신채호의 인식은 어느 정도 제시가 됐습니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사람과도 연대할 수 있다는, 투쟁과 연대는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애초에 신채호의 '관점'을 확보했다면 이후 내용을 이해하기가 조금 수월할 것입니다.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직면하여 그는 **신국민**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조선 민족이 신국민이 될 때 민족 생존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신채호는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직면하여 신국민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조선이 신국민이 되어야 민족 생존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신국민이 좋은 것인가 보네요. 이후 신국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제시된다면 확보하고, 그렇지 않다면 제국주의 침략에 직면하여 만든 신국민이라는 워딩 자체로만 확보하고 독해를 진행하면 충분합니다.

신국민은 상속성과 보편성을 지닌 대아로서, 역사적 주체 의식이라는 항성과 제국주의 국가에 대응하여 생긴 국가 정신이라는 변성을 갖춘 조선 민족의 근대적 대아에 해당한다.

앞서 제시한 개념들을 총동원해서 신국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속성과 보편성을 지닌 대아, 항성과 변성을 갖춘 대아가 신국민입니다. 이 신국민을 설명하기 위해 앞서 빌드업이 진행됐던 겁니다.

- 코멘트

이 부분은 결국 앞선 정보들에 대한 세팅이 잘 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납득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정보가 나열되고 있다고 느꼈을, 차이가 상당히 큰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본인이 이 문장을 읽을 때를 다시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는 일본을 중심으로 서구 열강에 대항하지는 동양주의에 반대했다. 동양주의는 비아인 일본이 아가 되어 동양을 통합하는 길이기, 조선 민족인 아의 생존이 위협받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독서에서 배경 지식으로 지문을 독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이는 상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납득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 코멘트

신채호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기초적인 한국사 지식만 있어도 이는 자연스럽게 납득되는 내용입니다. 국어에서 배경 지식으로만 문제를 접근하는 태도는 옳지 않지만, 교육 과정에 의거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은 분명 필요합니다.

식민 지배가 심화될수록 일본에 동화되는 세력이 증가하면서 신채호는 아 개념을 더욱 명료화할 필요가 있었다.

일본에 동화되는 세력이 늘어 아 개념을 더욱 명료화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의 아 개념에서 '변화'된 포인트가 있겠죠? '변화'는 핵심이니 그를 잡아봅시다.

이에 그는 **조선 민중을 아의 중심에 놓으면서, 아에도 일본에 동화된 '아 속의 비아'가 있고, 일본이라는 비아에도 아와 연대할 수 있는 '비아 속의 아'가 있음을 밝혔다.**

관형절을 당겨 읽어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아 속의 비아'는 일본에 동화된 것, '비아 속의 아'는 아(조선 민중)와 연대하는 것입니다. 즉 이 역시 대립쌍을 통해 '아 속의 비아'와 '비아 속의 아'를 명확하게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필히 관형절을 당겨 읽어 대립쌍의 의미를 파악해 확보하고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 코멘트 (중요!)

여기서 '비아 속의 아'와 연대할 수 있다는 말은 앞서 첫 문단에서 신채호의 사상(=관점, 핵심)의 다른 말 같은 뜻입니다. 바로 <식민지 민중과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 간의 연대>이죠. 결국, 처음에 제시한 신채호의 관점을 재진술한 수준입니다.

실전에서 이렇게 명확히 '아~ 초반에 대한 재진술~'이라는 이해는 힘들었을 수 있지만, 애초에 신채호의 관점을 명확하게 확보했다면 자연스럽게 납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민중은 비아에 동화된 자들을 제외한 조선 민족을 의미한 것이었다.

민중을 아의 중심에 놓았다고 했으니, 비아에 동화된 자들을 제외했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연스럽게 납득하고 독해를 진행했으면 충분합니다.

그는 조선 민중을, 민족 내부의 압제와 위선을 제거함으로써 **참된 민족 생존과 번영을 달성할 수 있는 주체이자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과의 연대를 통하여 부당한 폭력과 억압을 강제하는 제국주의에 함께 저항할 수 있는 주체로 보았다.**

지금까지 제시된 신채호의 사상(=관점, 핵심)을 정리하며 지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앞선 내용을 자연스럽게 재진술해주고 있는 수준으로 자연스럽게 독해를 마무리했으면 충분합니다.

1. 윗글에서 다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 ④

신채호 사상에서 대아의 개념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진행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대아의 '역사적 기원'을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머지 선지

① : 신채호의 사상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사상의 핵심 개념인 '아'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음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② : 신채호는 아의 자성(自性), 곧 '나의 나됨'은 스스로의 고유성을 유지하려는 항성(恒性)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적응하려는 변성(變性)이라는 두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③ : 신채호에 따르면 소아는 개별화된 개인적 아이이며, 대아는 국가와 사회 차원의 아이다. 소아는 자성은 갖지만 상속성(相續性)과 보편성(普遍性)을 갖지 못하는 반면, 대아는 자성을 갖고 상속성과 보편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⑤ : 신채호는 민중 연대를 통해 '인류로서 인류를 억압하지 않는' 자유를 지향했습니다.

- 코멘트

글의 거시적인 흐름(어떤 정보가 제시되었는지) 정도를 묻고 있습니다.

2. 윗글의 자성(自性)에 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 ④

대아가 자성을 자각한 이후,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통해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성이 크고 변성이 작으면 환경에 순응하지 못하여 멸절하고,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환경에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우월한 비아에게 정복당합니다. 따라서 항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대아의 상속성과 보편성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선지

① : 소아와 대아 모두 '자성'을 갖습니다. 그러나 소아는 상속성과 보편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차이점을 넘어 공통점까지 명확하게 확보했어야 합니다.

② : 소아는 상속성과 보편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③ : 대아의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항성과 변성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즉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⑤ : 소아는 상속성과 보편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 코멘트

발드업 구간에서 제시된 정보들은 꼭 이렇게 문제화됩니다.

cf) 14.11 CD 드라이브

조남희 국어

3.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답 ③

신채호는 '비아 속의 아'와의 연대가 가능하다 했지, '비아'와의 연대를 통해 '아'의 생존을 꾀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언어에 대한 민감함이 필요한 선지였습니다.

또한, 신국민은 제국주의 침략에 '직면했을 때' 등장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신채호가 '아'의 개념을 명료화해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과 연대를 지향한 것은 식민 지배의 '심화 이후'입니다.

나머지 선지

① : 신채호는 조선 민족의 생존과 발전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조선 상고사』를 저술했습니다. 이는 대아(국가와 사회 차원의 아)인 조선 민족의 자성(항성+변성)을 역사적으로 유지·계승(민족의 생존과 발전)할 수 있는지 모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② : 신채호는 동양주의는 비아인 일본이 아가 되어 동양을 통합하는 길에 기에, 조선 민족인 아의 생존이 위협받는다 보았습니다. 이는 동양주의로 인해 아의 항성이 작아져(고유성을 유지하는 항성이 작아져) 자성을 유지하기(자성=항성+변성, 항성이 작아지면 유지가 어려울 것) 어렵게 될 것으로 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④ : 상속성이란 시간적 차원에서 아의 생명력이 지속되는 것을 뜻하며, 보편성이란 공간적 차원에서 아의 영향력이 파급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신채호는 비아인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이 아의 상속성과 보편성 유지를 불가능하게 하기에 일본 제국주의와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⑤ : 신채호는 조선 민중을 아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선 민중을 민족 내부의 압제와 위선을 제거함으로써 참된 민족 생존과 번영을 달성할 수 있는 주체이자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과의 연대를 통하여 부당한 폭력과 억압을 강제하는 제국주의에 함께 저항할 수 있는 주체로 보았습니다.

tip - 지문 표현≠선지 표현

이 문제는 '답'을 고르는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선지들을 완벽하게 해설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전이라면 그냥 명확한 '답'을 고르고 넘어가야겠지만, 분석의 과정에서는, 특히 현수능의 경향에서는 이런 문항에 대한 분석이 필수입니다.

현 추세와 같이 선지에서 지문 표현을 그대로 복붙하는 것이 아닌, 같은 범주의 표현으로 제시되는 문제는 글을 읽을 때 범주화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결국 글을 이해해야)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4.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 ③

총평

- 핵심 확보(관점 파악)
- 빌드업
- 비교·대조(대립쌍)
- 당겨 읽기
- 범주화(다른 말 같은 뜻)

지문 독해를 시작하며 제시된 신채호의 '관점'을 확보한 뒤, 빌드업 구간에서 대립쌍을 통해 구분을 통한 정보 세팅이 진행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겨 읽기를 통해 체감 정보량을 낮추고, 결국 마지막 신채호의 사상이 자연스럽게 이해됐다면(다른 말 같은 뜻) 완벽한 독해를 진행하신 겁니다.

여담으로 신채호 지문은 지문 해설을 위해 만들어진 지문 같습니다. 참 좋은 포인트가 많습니다.

2011.11 / 율리우스력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레고리력

1582년 10월 4일의 다음날이 1582년 10월 15일이 되었다. 10일이 사라지면서 혼란이 예상되었으나 교황청은 과감한 조치를 단행했던 것이다.

10월 4일 다음날이 갑자기 10월 15일이 되면 당연히 혼란이 예상되겠죠?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과감하게 조치를 단행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납득하며 독해를 시작해봅시다.

이로써 ㉠ **그레고리력**이 시행된 국가에서는 이듬해 **춘분인 3월 21일에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졌다.**

일단 저런 과감한 변화는 그레고리력의 결과인가 봅니다. 그리고 이 그레고리력의 결과로 춘분(3/21)에 밤낮의 길이가 같아진 것이죠. 일단 그레고리력의 결과(춘분에 밤낮 길이 같아짐) 정도는 체크하고 독해를 진행합시다.

**그레고리력**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무시당하고 여전히 **천동설이 지배적이었던 시절에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려는 필요에 의해** 제정되었다.

그레고리력에 대한 정보를 두 가지나 한 문장 안에서 제시해줬습니다. 정확하게 확보하고 갔어야 합니다. 우선 **그레고리력은 천동설이 지배적이던 시절에 제정**되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천동설의 영향을 피할 수는 없었겠네요. 그리고 그레고리력의 '목적'은 부활절을 정확히 지키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케이 '전제'는 천동설 지배, '목적'은 부활절> 정도로는 정리가 된 상태로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그 전까지 유럽에서는 ㉡ **율리우스력**이 사용되고 있었다.

그레고리력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전까지는' 율리우스력이 사용되었다네요. <율리우스력 → 그레고리력>으로 변화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둘의 차이와 공통점을 정확하게 잡겠다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카이사르가 제정한 태양력의 일종인 율리우스력은

일단 율리우스력은 태양력의 일종입니다. <율리우스력=태양력>과 같이 항상 상위 범주와 하위 범주의 개념을 생각하며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제정 당시에 알려진 1년 길이의 평균값인 365일 6시간에 근거하여 평년은 365일, 4년마다 돌아오는 윤년은 366일로 정했다.

평년은 365일, 4년마다 윤년은 366일이랍니다. 지금 우리의 상식과 충돌하지 않죠? 우리도 4년에 한번씩 2월 29일이 있는 것처럼요. 이 정도는 자연스럽게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율리우스력의 4년은 실제보다 길었기에 **절기는 조금씩 앞당겨져 16세기 후반에는 춘분이 3월 11일에 도래했다.**

율리우스력의 4년이 실제보다 길어서 생기는 문제가 제시되었습니다. 절기가 당겨져서 춘분이 3/11에 도래한 것이네요. (앞선 정보를 생각하면 춘분은 3/21입니다.) 일단 문제 상황 <4년이 실제보다 길어, 절기가 당겨짐, 춘분이 안 맞음>을 정확하게 확보하고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tip - 기본은 문장  
 결국 수능 국어든, 리트든 '문장'을 정확하게 읽어야 합니다. 실전에서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하기 가장 어려운 독해가 문장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점점 리트든, 수능 국어든 명시적으로 글의 구조를 떠먹여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미를 파악하며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문장 역시, 대놓고 '이게 문제야~'라고 명시적으로 적어주진 않았지만, <실제보다 길어, 절기가 당겨져, 춘분이 안 맞음 => 문제 상황>이란 것을 능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항상 문장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습관을 갖추셔야 합니다.

이것(앞선 문제 상황)은 춘분을 지나서 첫 보름달이 뜬 후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한 교회의 전통적 규정에서 볼 때,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는 문제를 낳았다.

앞선 문제 상황으로 인해 춘분 이후 첫 보름달 이후 첫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한 것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디. 즉 <4년이 실제보다 길어, 절기가 당겨짐, 춘분이 안 맞음, 부활절 안 맞음>까지가 문제 상황인 것이죠. **앞선 내용을 당겨 읽어 '율리우스력의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tip - 당겨 읽기  
 해당 부분을 독해함에 있어, 지시어를 그냥 읽은 사람과 지시어에 해당하는 내용을 당겨 읽으며 자연스럽게 내용을 이해한 사람의 차이는 분명 존재합니다. **지시어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문장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문 독해 시 우리는 문장 자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핵심을 확보한 독해 등을 위해 지문 해설에 작성한 것처럼(괄호 친 부분 같이) 지시어를 단순히 흘려 읽지 말고, 해당 지시어나 앞선 내용의 핵심을 '당겨 읽으며'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것(율리우스력의 문제)이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역법 개혁을 명령한 이유였다.

율리우스력의 문제로 역법 개혁이 명해졌죠? 앞서 제시된 정보를 생각한다면 이 문제를 과감하게 그레고리력으로 해결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레고리력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문제의 '원인'과 '그에 맞는 해결'**을 인식하고 독해를 진행해 봅시다.

**그레고리력의 기초를 놓은 인물은 릴리우스였다.**

이제 그레고리력 얘기를 할 건가봅니다. 그레고리력의 특징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해봅시다. 물론 당연히 율리우스력과 차이점, 그리고 공통점까지 신경써줘야겠죠.

tip - 비교 · 대조 쌍  
 실제 독해 시 a와 b가 대조되는 전개 방향이라면 a를 읽을 때는 있는 그대로 정리를 잘하면서 독해를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a이후 제시되는 b를 읽을 때는 a와의 공통점과 구분되는 차이를 생각하며 독해를 진행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비교 · 대조 쌍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문제로 출제되기 마련이고, 지문 독해 시 이러한 부분을 미리 파악하고 독해를 진행한다면, 지문 이해는 물론이고 문제 풀이까지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릴리우스)는 당시 천문학자들의 생각처럼 복잡한 천체 운동을 반영하여 역법을 고안하면 일반인들이 어려워할 것이라 보고, **율리우스력처럼 눈에 보이는 태양의 운동만을 근거로 1년의 길이를 정할 것을 제안했다.**

우선 그레고리력은 태양의 운동'만'을 근거로 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추가적으로 제시된 게 있죠. 바로 율리우스력'처럼'입니다. 즉 **그레고리력과 율리우스력 '모두' 태양의 운동'만'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조사에 대한 민감한 반응으로 문장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했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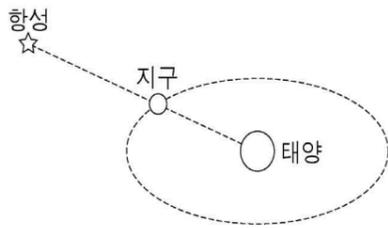
tip - 조사에 대한 민감함  
 A는 B~처럼 C~만을 근거하다. => A와 B 모두 C만을 근거한다.  
 이와 같이 조사를 통해 문장의 뜻 자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어는 '조사'를 통해 의미가 추가&제한되는 것이 빈번하기 때문이 조사에 대한 민감한 반응은 필수적입니다.  
 앞으로는 독해 시 ~처럼 ~만. ~도 와 같은 보조사의 뜻을 신경 쓰면서 문장 자체를 정확하게 독해하는 습관을 들이기를 권장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1년의 길이로 볼 것인가가 문제였다. 릴리우스는 반세기 전에 코페르니쿠스가 지구의 공전 주기인 항성년을 1년으로 본 것을 알고 있었다.

약간 붕 뜰 수 있는 문장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저였다면, 최소한 코페르니쿠스 <지구 공전 주기 = 항성년>이라는 항성년에 대한 개념 확보, 1년 주기를 항성년으로? 정도의 생각 정도를 하고 독해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 코멘트

뒤를 읽어 보면 의미 파악이 쉬워집니다. 과거는 항성년을 1년 주기로 했지만, 이는 문제가 있어서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건 뒤를 읽어 앞의 의미가 이해되는 것입니다. 실전에서는 이렇게 뒤를 통해 앞이 이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존재를 인식하고 확보할 것만 확보한 상태로 독해를 진행하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항성년은 위의 그림처럼 태양과 지구와 어떤 항성이 일직선에 놓였다가 다시 그렇게 될 때까지의 시간이다.

친절하게 그림까지 제시해줬으니, 그림을 통해 이해합니다. 그림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약간 까다로울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림이 너무 친절하네요.

- 코멘트

요즘 평가원씨는 불친절하기 때문에, 그림이 없어도 해당 문장의 의미를 스스로 이미지화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릴리우스는 교회의 요구에 따라 절기에 부합하는 역법을 창출하고자 했기에 항성년을 1년의 길이로 삼을 수 없었다.

개인적으로 정확히 뚫기가 힘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이 항성년은 '지구 공전 주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릴리우스는 '태양의 운동만'을 근거로 하죠. 그리고 이 시기는 아직 천동설이 지배적이고, 천동설을 유지하는 교회 요구에 따라 한 것이니 항성년을 1년의 길이로 설정할 수 없는 것이죠.

- 코멘트

개인적으로 지동설, 천동설의 개념과 역사를 간략하게는 알고 있어야 해당 문장을 실전에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배경 지식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전에서 저 정도까지 근거를 잡으려면 앞서 제시한 내용을 짚짚 당겨 읽어야 합니다. (천동설이 지배적 + 항성년의 개념) 개인적으로 요즘 수능이라면 저기서 <항성년을 1년으로 삼을 수 없는 이유>를 물어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릴리우스)는 춘분과 다음 춘분 사이의 시간 간격인 회귀년이 항성년보다 짧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교회 목적에 따라 춘분을 맞춰줘야 하는데 회귀년이 항성년보다 짧으면 골치 아플겁니다. 이렇게 의미를 파악해줌과 동시에, 문장 내에서 구분해준 <회귀년이 항성년보다 짧다>는 차이까지 확보해주며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tip - 모두가 아는데 다수가 간과하는 부분

이 문장처럼 문장 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는 경우 이를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점점 지문의 트렌드가 대놓고 명확한 구조를 드러내는 것은 지양하고 구조의 혼합, 밀도 높은 문장을 지향하고 있는 현 추세에서 기본적인 문장 단위에서 응당 이루어져야 할 독해 태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항성년과 회귀년의 차이는 춘분 때의 지구 위치가 공전 궤도상에서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현상 때문에 생긴다.

항성년과 회귀년 차이의 원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춘분 지구 위치가 공전 궤도 상 매년 조금씩 달라진다고요. 왜 달라지는지까지는 배경 지식의 영역입니다. 실전에서는 이해가 안 되면, <달라진다는 게 원인> 정도로 잡고 독해를 이어가야 합니다.

릴리우스는 이 현상(항성년 회귀년 차이)의 원인에 관련된 논쟁을 접어 두고,

지문에서 제시합니다. 이 현상의 원인에 대한 논쟁은 접어두자고. 그렇다면 우리도 접어두고 일단 글을 계속 읽어봅시다.

당시 가장 정확한 천문 데이터를 모아 놓은 알폰소 표에 제시된 회귀년 길이의 평균값을 채택하자고 했다.

릴리우스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 드디어 제시되었습니다. 일단 <정확한 측정값을 통해 회귀년 길이의 평균값>을 측정합니다.

tip - 정말 사소한 팁

이건 정말 사소한 습관이지만, leet나 수능같이 잘 완성된 글에서는 조사, 접속사, 강조 등 어떤 부분도 허투루 쓴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가장 정확한'이라고 대놓고 지문에서 강조를 해줬다는 인식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값은 365일 5시간 49분 16초였고, 이 값을 채용하면 새 역법은 율리우스력보다 134년에 하루가 짧아지게 되어 있었다

변화된 차이점이 나오네요. 우선 이것을 활용하면 134년에 하루가 율리우스력보다 짧아집니다. 이 차이로 인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니 차이를 필히 확보해야 합니다.

릴리우스는 연도가 4의 배수인 해를 ③ 윤년으로 삼아 하루를 더하는 율리우스력의 방식을 받아들여, 100의 배수인 해는 평년으로, 400의 배수인 해는 다시 윤년으로 하는 규칙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 문장 내에 짚 정리해줍니다.

<공통점 : 4의 배수 윤년 / 차이점 : 그런데 릴리우스는 100 배수는 평년, 400 배수는 윤년> 저 차이점을 통해 릴리우스는 율리우스력의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왜냐? 공통된 점만 그대로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죠? '변화' '차이점'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일 겁니다.

이것은 1만 년에 3일이 절기와 차이가 생기는 정도였다. 이리하여 그레고리력은 과학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절기에 더 잘 들어맞는 특성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새 역법(그레고리력)은 종교적 필요를 떠나 일상생활의 감각과도 잘 맞아서 오늘날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

1만 년에 3일 정도가 절기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면, 우리 손주가 죽을 때까지는 체감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레고리력은 절기도 잘 맞고 요즘까지 사용되는 것이죠. 율리우스력과 구분되는 차이점이네요. <절기도 더 잘 맞고, 오늘날까지 사용>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 차이 정도를 인식하고 독해를 마무리했으면 충분합니다.

- 코멘트

율리우스력의 문제 : 4년이 실제보다 길어, 절기가 당겨짐, 춘분이 안 맞음, 부활절 안 맞음.

그레고리력의 해결 : 정확 측정으로 4년도 더 정확해짐. 차이 아주 미세함. 절기 잘 맞음, 부활절 맞음.

##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답 ③

릴리우스는 교회의 요구에 따라 절기에 부합하는 역법을 창출하고자 했기에 항성년을 1년의 길이로 삼을 수 없었습니다. 즉 릴리우스는 교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역법 개혁안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선지

① : 1582년 10월 4일의 다음날이 1582년 10월 15일이 되었습니다. 단번에 바꾼 것이지 몇 년에 걸쳐 수정된 것이 아닙니다.

② : 과학계의 반대는 제시된 적이 없습니다.

④ : 릴리우스는 항성년과 회귀년의 차이는 춘분 때의 지구 위치가 공전 궤도상에서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현상의 원인에 대한 논쟁은 접어렸습니다. 즉 천문 현상의 원인에 대한 규명에 큰 관심을 가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⑤ : 그레고리력은 지동설이 무시당하고 여전히 천동설이 지배적이었던 시절에 제안되었습니다.

- 코멘트

글의 '전제'(천동설 지배)를 인식했다면 답을 고르기 수월했을 문항입니다.

## 2. 윗글과 <보기>를 함께 읽은 후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분석

역법은 보름달 주기를 기준으로 함.

30일과 29일 번갈아 씀.

평년은 354일 윤년은 354+한달

답 ③

태양력의 일종인 율리우스력처럼 그레고리력도 태양의 운동'만'을 고려합니다. 즉 서양의 태양력은 태양의 운동'만'을 고려합니다.

상위 범주, 하위 범주에 대한 인식, 조사를 통한 문장 자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나머지 선지

① : 음력은 보름달 주기를 기준으로 하고, '부활절을 정하는' 것도 첫 보름달이 뜬 후 첫 번째 일요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에서 달의 모양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둘 점은 '부활절을 정하는' 것에 보름달을 쓴 것이지, 태양력을 정할 때는 '태양의 운동만' 고려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헷갈렸다면 3번 선지를 고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② : 동양은 달, 서양은 태양의 움직임을 고려해 역법을 만들었습니다. 둘다 모두 천체의 움직임을 고려해 역법을 만들었습니다.

④ : 태음태양력의 열두달은 354일입니다. 그런데 그레고리력의 1년은 365일이 기본이고, 윤년일 때 366일입니다.

⑤ : 윤달이 첨가된 태음태양력의 윤년은 354일+한 달입니다. 율리우스력의 윤년은 366일이고요.

- 코멘트

비교·대조형 <보기>입니다. 지문과 <보기>를 기준점에 의거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cf) 18.06 울곡의 사상과 법제 개혁론. 플라톤 <보기> 문항.

3. ㉠과 ㉡을 비교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 그레고리력 / ㉡ : 율리우스력

답 ㉡

㉡은 당시 알려진 1년 길이의 평균값에 근거했고 ㉠은 당시 가장 정확한 천문 데이터를 모아 놓은 알폰소 표에 제시된 회귀년 길이의 평균값을 채택했습니다. '가장 정확한' 이란 강조 표현에서 답이 결정되었습니다.

나머지 선지

㉠ : 율리우스력의 방식을 받아들여, 100의 배수인 해는 평년으로, 400의 배수인 해는 다시 윤년으로 합니다. 즉 1700년은 ㉠에게 윤년이 아닙니다.

㉢ : 둘다 연도가 4의 배수인 해를 윤년으로 삼지만, 그레고리력은 100의 배수인 해는 평년으로, 400의 배수인 해는 다시 윤년으로 하는 규칙을 추가합니다. 즉 ㉠은 ㉡보다 윤년이 덜 돌아옵니다.

㉣ : ㉠은 과학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절기에 더 잘 들어맞는 특성을 가집니다.

㉤ : ㉠이 사용되기 전까지 ㉡이 사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날 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 코멘트

문제의 원인에 맞는 해결, 혹은 비교·대조 쌍에 대한 이해로 접근하시면 충분한 문항입니다.

4. [A]를 이해하기 위해 <보기>를 활용할 때 ㉠~㉣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분석 및 답 ㉤

철수가 식당 한바퀴를 돌아 식탁으로 돌아오는 것은 ㉠ : 57초

폭포에 가장 가까운 창가에 돌아오는 것은 60초 ㉡ : 60초

지문에 근거했을 때 회귀년이 항성년보다 짧음

즉 ㉠은 회귀년, ㉡은 항성년

그리고 [A]는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의 항성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원형 전망대 식당은 중심을 기준으로 회전하고 그 안에서 철수는 회전합니다. 즉 [A]를 설명하는 그림에 근거했을 때 중심은 태양이고, 철수는 지구입니다.

- 코멘트

맥락을 통해 같은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묻고 있습니다.

cf) 17.06 유비 논증 <보기> 문항

5. ㉠의 '으로'와 쓰임이 가장 가까운 것은?

답 ㉢

총평

- 문제의 '원인', 그에 맞는 해결, 비교·대조
- 문장 자체에 대한 이해
- 조사에 대한 민감함

글의 구조를 파악할 때 문제의 원인을 능동적으로 잡고, 해결 역시 능동적으로 잡아야 했습니다. 글의 구조부터 스스로 파악했어야 하는 지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문에서 단순한 글의 구조보단, 독해의 과정에서 문장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글이 '응 율리우스력 문제 그레고리력 해결'이라는 걸 아무리 잘 잡아봤어야, 그나마 문항이 요즘에 비해 조금 쉬워서 풀만하다 느낀 거지 문장 자체를 통한 의미 파악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문입니다.

2016.11B / 중력, 부력, 항력의 개념과 적용

어떤 물체가 물이나 공기와 같은 유체 속에서 자유 낙하할 때 물체에는 중력, 부력, 항력이 작용한다.

유체 속에서 자유 낙하할 때 중력, 부력, 항력이 작용합니다. 유체 속에서 '자유 낙하할 때' 중력, 부력, 항력이 작용하는 것이니, 당연히 자유 낙하할 때 저 힘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코멘트

사실상 이 지문의 핵심을 관통하는 것은 이 첫 문장입니다. 지문 전체가 개념이 세팅된 이후 이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서술되고 있습니다. 항상 지문 초반 정보에서 글의 화제, 핵심이 제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첫 문장을 통해 핵심과 화제를 판단하는 힘을 기릅니다.

**중력은 물체의 질량에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으로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 일정하다.**

중력에 대한 개념을 제시합니다. 기술에서 구성 요소를 세팅하듯이 필요한 개념을 미리 세팅해준다고 생각하고, 명확하게 확보하고 갔어야 합니다.

일단 공식이 제시된 것이니 <중력 = 질량×중력 가속도>의 공식을 정리하고 '일정'하다는 고정값을 챙겨갑시다. 이게 결국 우리 글의 핵심인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내용과 직결된다는 것을 인식했으면 베스트입니다.

- 코멘트

이해한다면 이럴 수 있겠죠. 물체의 질량에 중력 가속도를 곱한 것이 중력입니다. 그런데 물체의 질량과 중력 가속도가 변하지 않는 한(갑자기 질량이 변하는 것도 이상하죠)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 중력은 일정할 것입니다. 최소한 공식을 적용하고, 이상적으로는 그 공식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할 태도입니다.

tip - 빌드업  
이는 빌드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제시해준 문장입니다. 대놓고 '~을 위해선 ~을 알아야 한다.' 식으로 제시해주진 않았지만, 화제를 제시한 뒤 바로 그와 관련된 개념들을 세팅해주고 있습니다. 핵심을 제시한 이후, 그에 직결되는 얘기가 제시되지 않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빌드업이 진행된다는 인식을 갖춰야 합니다. 빌드업 구간은 정보를 세팅하는 용도로 글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핵심을 상기한 상태로' 제시된 정보들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ex. 15.11 신재호 지문 ⇒ 신재호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한 '아' 개념 세팅

**부력은 어떤 물체에 의해서 배제된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에 해당하는 힘으로, 항상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부력의 개념을 제시합니다. 이 역시 공식을 제시해주고 고정값을 제시합니다. 여기서도 최소한 <부력 = 물체에 의해 배제된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의 공식을 정리하고 '항상 중력 반대'라는 고정값을 챙겨갑시다.

tip - 고정값과 유동 값  
중력은 변하지 않는 고정된 값이고, 부력도 '항상 중력 반대'로 작용하는 고정된 힘입니다.  
관계식을 대할 때 앞선 개념을 통해 '고정값과 유동 값'에 대한 인식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빗방울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는 빗방울의 부피에 해당하는 공기의 무게이다. 공기의 밀도는 물의 밀도의 1,000분의 1 수준이므로, 빗방울이 공기 중에서 떨어질 때 부력이 빗방울의 낙하 운동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미미하다. 그러나 스티로폼 입자와 같이 밀도가 매우 작은 물체가 낙하할 경우에는 부력이 물체의 낙하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대놓고 두 대상을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구분한 상태로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기에 비해 밀도가 높은 물에 대해서는 부력이 낙하 운동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미미합니다. 이에 비해 밀도가 매우 작은 물체는 부력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낙하 시 <밀도가 크면 영향을 덜 받고 / 밀도가 작으면 영향을 많이 받음> 정도로 구분이 된 상태로 독해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tip - 모두가 아는데 다수가 간과하는 부분  
거시적으로(구조적으로) 두 쌍이 나올 때 차이점도 중요하지만, 공통점도 중요하다는 독해 태도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놓고 비교·대조 구조의 지문이 나올 때와는 달리 이 문장처럼 문장 내(여기서는 두 문장 간)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는 경우 이를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점점 지문의 트렌드가 대놓고 명확한 구조를 드러내는 것은 지양하고 구조의 혼합, 밀도 높은 문장을 지향하고 있는 현 추세에서 단순히 글의 전체적인 구조만으로 이루어진 독해 태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기본적인 문장 단위에서 응당 이루어져야 할 독해 태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tip - 구체적인 예시  
이 지문에서 왜 굳이 예시까지 활용하며 상대적으로 밀도가 큰 경우와 밀도가 작은 경우를 구분해서 제시해줬을까요? 이런 경우 독해 시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리고 문제로 출제하기 위해 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지문에서 이렇게 특정 개념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가 등장한다면 문제화될 것을 인식하고 독해 시기를 권장합니다. 아주 사소하지만, 독해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cf) <보기> 문항.

**물체가 유체 내에 정지해 있을 때와는 달리, 유체 속에서 운동하는 경우에는 물체의 운동에 저항하는 힘인 항력이 발생하는데.**

물체가 정지해 있을 때와 '달리' 유체 속에서 운동할 때 운동에 저항하는 항력이 발생합니다. 대놓고 정지한 경우와 운동하는 경우를 구분해 준 것으로 <항력 = 운동 시, 운동에 저항하는 힘>으로 정리된 상태로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 코멘트

이 역시 우리 글의 핵심인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힘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한다.

항력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하는 힘입니다. 역시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우리의 핵심이니 운동 방향 '반대'라는 것은 명확하게 가져가야 합니다.

- 코멘트

+ 이 역시 운동에 "저항하는 힘"이 항력이니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한다는 것을 '납득'하고 독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죠.

+ 여기서 오독이 발생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금 앞선 예시가 '낙하'의 경우를 다루고 있어 항력이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한다는 것을 "↓"라고 단정 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작용하는지 명확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운동 방향과 반대"라는 사실이 고정된 것인지 그 방향이 어디인지는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항력은 유체 속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가 커질수록 이에 상응하여 커진다.

비례 관계가 제시되었습니다. 일단 당연히 <물체 속도 ↑ - 항력 ↑> 과 같이 정리된 상태로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항력은 마찰 항력과 압력 항력의 합이다.

항력을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항력 = 마찰 항력 + 압력 항력>입니다. 두 대상을 구분해준다는 인식은 당연한 것이고, 공식으로 제시되었으니 정리하고 독해를 진행하는 것이 속편합니다.

마찰 항력은 유체의 점성 때문에 물체의 표면에 가해지는 항력으로, 유체의 점성이 크거나 물체의 표면적이 클수록 커진다.

마찰 항력의 개념을 제시하며 비례 관계를 제시합니다. <유체의 점성, 표면적 ↑ - 마찰 항력 ↑> 정도로 최소한 정리된 상태로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 코멘트

+ 이 역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끈적끈적하거나, 표면이 넓으면 저항을 많이 받겠죠? 이런 상식적인 사고를 통해 '납득'을 하며 독해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최소한 정리를 정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 15.09 점탄성 지문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다면 납득이 조금 더 수월하게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출에서 제시된 지식은 이제 상식이 되었습니다.

압력 항력은 물체가 이동할 때 물체의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 차에 의해 생기는 항력으로, 물체의 운동 방향에서 바라본 물체의 단면적이 클수록 커진다.

압력 항력의 정의를 제시하며 비례 관계를 제시합니다.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 차로 이 친구는 단면적이 넓을수록 커집니다.

- 코멘트

표면적과 단면적의 개념 차이를 모르면 약간 혼동이 될 수 있습니다. 지문에서 엄청 핵심적인 수준까지는 아니었지만요.

표면적 : 물체 겉면의 넓이

단면적 : 물체를 하나의 평면으로 자른 넓이

안개비의 빗방울이나 미세 먼지와 같이 작은 물체가 낙하하는 경우에는 물체의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 차가 매우 작아 마찰 항력이 전체 항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구체적 예시를 통해 마찰 항력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를 제시해줍니다. 앞서 압력 항력의 정의를 파악했다면, "압력 차가 매우 작을 때" 마찰 항력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유를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빗방울의 크기가 커지면 전체 항력 중 압력 항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커진다.

최소한 여기서 <물체 크기 ↑ - 압력 항력 비중 ↑> 정도의 정리는 된 상태로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조금 더 '납득'을 한다면, 압력 항력은 물체의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 차이입니다. 그러니 크기가 커지면 전후방에 생기는 차이가 커지며 압력 항력의 비중이 커지는 것입니다. 최소한 정리, 그리고 납득의 사고 과정입니다.

반면 스카이다이버와 같이 큰 물체가 빠른 속도로 떨어질 때에는 물체의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 차에 의한 압력 항력이 매우 크므로 마찰 항력이 전체 항력에 기여하는 비중은 무시할 만하다.

이어서 마찰 항력이 무시할 만한 경우를 제시합니다. 스카이다이버같이 큰 물체 + 빠른 속도면 압력 차가 커서 압력 항력이 커집니다. 여기서 "왜 압력 차가 커지지?"라는 의문이 납득됐으면 베스트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더라도, 압력 차가 커지니 압력 항력이 커진다는 것은 앞선 개념을 통해 자연스럽게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tip - 비교 · 대조 쌍

실제 독해 시 a와 b가 대조되는 전개 방향이라면 a를 읽을 때는 있는 그대로 정리를 잘하면서 독해를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a 이후 제시되는 b를 읽을 때는 a와의 공통점과 구분되는 차이를 생각하며 독해를 진행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해당 부분 같은 경우는 케이스에 따른 차이를 명확하게 나누며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빗방울이 낙하할 때 처음에는 중력 때문에 빗방울의 낙하 속도가 점점 증가하지만, 이에 따라 항력도 커지게 되어 마침내 항력과 부력의 합이 중력의 크기와 같아지게 된다

해당 지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장입니다. 결국 우리 지문에서 말하고자 했던 "자유 낙하할 때 저 힘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판단"이 제시되고 있으니깐요.

빗방울이 "낙하"할 때 "중력"의 영향으로 낙하 속도가 증가합니다. 속도가 증가하니 당연히 항력도 커지게 되겠죠? 그 결과 낙하 시에 <항력+부력=중력>이 되는 겁니다.

- 코멘트

중력과 부력은 고정된 값입니다. 그리고 "항력"이 유동값이죠. 그러니 낙하 시에 항력이 점점 커지면 항력+부력=중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때<항력+부력 = 중력> 물체의 가속도가 0이 되므로 빗방울의 속도는 일정해지는데, 이렇게 일정해진 속도를 종단 속도라 한다.

<항력+부력 = 중력>인 경우에 물체의 가속도가 0이 됩니다. 당연히 "<항력+부력 = 중력> = 물체 가속도 0"과 같이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속력이 0인 속도가 종단 속도입니다.

유체 속에서 상승하거나 지면과 수평으로 이동하는 물체의 경우에도 종단 속도가 나타나는 것은 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평형에 의한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지문에서 하강하는 경우를 얘기했는데, 유체 속에서 상승하는 경우와 수평 이동 경우에서 종단 속도가 나타나는 것(결국 중력, 부력, 항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을 물어보겠다는 거겠죠. 슈퍼문 기출에서 본 것같이 당연히 반대 상황이 출제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같다고 제시된 것들 <이동 방향 힘 = 반대 방향 힘>을 정리하고 독해를 마무리했어야 합니다.

tip - 역을 생각하는 능력

이렇게 관계식이 얽혀있을 때 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경우가 나오면 그에 대한 '역'도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역'을 다루는 경우가 문제로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 지문 독해할 때 이 정도까지 가능한 독해력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안정적인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 15 수능 슈퍼문 <보기> 문제

배경지식 논쟁

과학적 상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지문은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지문입니다. 그런데, 과학적 지식이 없다면 상황을 정리하는 것까지는 가능해도 납득하면서 독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지문이 출제되었을 때는 킬러 지문이었고, 과학 배경지식에 대한 유불리 논쟁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경지식 논쟁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죠.

제 입장은 배경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은 허황이라는 점입니다. 최소한 우리는 기출에 제시된 배경지식은 알고 있는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실제로 기출에서 특정 개념들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유불리는 꽤나 큼니다.

본인이 배경지식이나 어휘력이 부족하다면, 요즘 배경지식, 어휘력 정리 잘된 책 많습니다. 그런 거라도 가볍게 한 권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1.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 ④

부력은 어떤 물체에 의해 배제된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에 해당하는 힘입니다. 그러니 균일한 밀도의 액체 속에서 낙하하는 동전은 항력과 상관없이 일정한 크기를 유지합니다.

추가적으로 지문에서 항력과 중력이 연결된 정보였지, 부력과 항력이 연결된 적은 없습니다. 이런 허위 인과를 조심해야 합니다.

cf) 19.09 STM <보기> 문항 5번 선지

나머지 선지

① : 스카이다이버와 같이 큰 물체가 빠른 속도로 떨어질 때에는 물체의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 차에 의한 압력 항력이 매우 크므로 마찰 항력이 전체 항력에 기여하는 비중은 무시할만 합니다.

② : 물체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 차는 압력 항력을 만듭니다. 그리고 항력은 운동에 저항하는 힘입니다. 그러니 물체가 유체 속에서 운동할 때 물체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 차는 그 물체의 속도를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③ : 종단 속도에 이르는 것은 가속도가 0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종단 속도에 이르렀을 때 물체의 가속도와 중력 가속도는 다릅니다.

중력 가속도가 약 9.8 정도라는 건 상식입니다.

⑤ : 선지를 정확하게 독해해야 합니다. '완전히 잠겨 있는 쇠 막대'입니다. 부력의 정의는 어떤 물체에 의해 배제된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입니다. 그러니 완전히 잠겨 있는 쇠 막대라면 서 있거나 누워 있거나 상관없습니다.

cf) 14.09 각운동량 지문 첫 문항 4번 선지 : '크기와 무게가 같은' '속이 빈' 쇠공과 '속이 찬' 플라스틱 공

- 코멘트

단순 일치 수준의 선지는 아닙니다. 선지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바를 파악하고 그것을 지문을 통해 판단하는 선지 판단의 사고 과정을 생각하길 바랍니다.

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분석

A, B의 크기는 같음  
밀도 : A<B<공기

정지하고 있다가, 두 물체가 “상승”하다가 시간이 달라짐  
⇒ 지문에서는 하강을 다뤘는데, 이 반대인 상승을 다뤘습니다.

여기서 상황을 정리했어야 합니다.

우선 중력은 당연히 ↓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부력은 항상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니 ↑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상승”하고 있는 경우니 항력은 그 반대인 ↓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면 생각해봅시다. 이 둘 다 속도가 증가하다가 각각 다른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상승합니다.  
⇒ 지문의 종단 속도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력+부력 = 중력>을 적용하는 경우이죠. 이는 “하강” 시에 대한 정보입니다.

지금 지문에서는 ‘중력 ↓, 항력 ↓, 부력 ↑’입니다. 그러니 힘의 평형이 맞춘다면 “부력 = 중력 + 항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답 ⑤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큰 기체 내에서 B가 상승한다면, B의 밀도는 공기 중보다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지문에서 <밀도가 크면 영향을 덜 받고 / 밀도가 작으면 영향을 많이 받음>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큰 경우가 B는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은 경우이니 부력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부력 = 중력 + 항력”에 근거하면, 중력은 고정된 값이고, 부력이 증가한 상황이니 항력은 더 클 것입니다.

엄밀하게 접근하자면, 지문에서 밀도의 개념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밀도의 개념을 활용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해당 풀이는 ‘상대적 비교’를 이용한 관점으로 이 관점은 꼭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선지

- ① : 고정되어 있을 때는 항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력은 운동 시에 발생하는 힘입니다.
- ② : A, B가 일정 속도를 유지한다면 둘은 종단 속도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둘 다 “부력 = 중력 + 항력”입니다. 여기서 부력은 물체에 의해 배제된 부피만큼의 무게입니다. 그러면 둘은 크기가 받으니까 부력이 같습니다. 그런데 B는 A보다 밀도가 높습니다. 동일한 크기에서 밀도가 높으니 당연히 B는 A보다 무거울 것입니다. 그러면 B가 받는 중력이 더 많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둘의 부력이 같으므로 B가 받는 항력이 더 작게 됩니다.
- ③ : 부력과 중력은 모두 고정값입니다.
- ④ : 항력은 속도가 커질수록 이에 상응하여 커집니다. 그러니 항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에 도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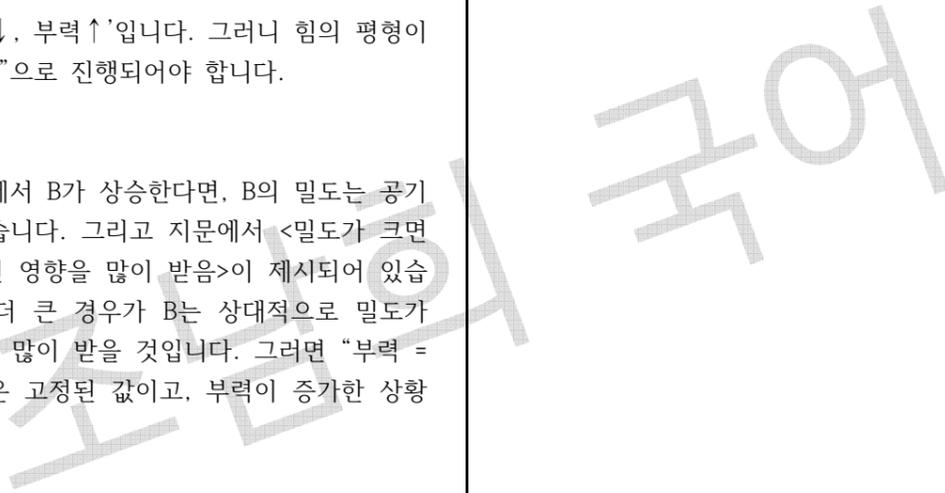
- 코멘트

<보기>를 독해하며 이게 지문에 무슨 상황에 대응되는 것인지, 역을 추론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총평

- 화제 파악
- 개념 정리, 공식 정리
- 정리와 납득
- 고정값, 유동값

지문 초반 제시된 화제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에서 지문 독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제시된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하며 이후 적용 양상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제시된 개념을 정리하며 ‘납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우리가 지향할 방향이라는 점, 그리고 이것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지문 내 정보를 정리해서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2015.11B / 슈퍼문 현상에 대한 이해

우리는 가끔 평소보다 큰 보름달인 '슈퍼문(supermoon)'을 보게 된다. 실제 달의 크기는 일정한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대놓고 글의 화제를 제시하며 지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달의 크기는 당연히 일정한데, 왜 더 크게 보이는 현상이 발생할까요? 이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지문의 핵심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독해를 시작합니다.

이 현상은 달의 공전 궤도가 타원 궤도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

달의 공전 궤도가 타원 궤도라는 점이 우리의 물음과 관련이 있나 봅니다. 타원 궤도도 중요한 정보라는 것 정도를 인식하고 독해를 진행합니다.

타원은 두 개의 초점이 있고 두 초점으로부터의 거리를 합한 값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다.

타원 궤도가 중요하다는 걸 인식했는데, 타원에 대한 정의가 제시됩니다. 당연히 정의를 확보하고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 코멘트

타원의 정의를 완벽하게 확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타원에 대한 이미지만 떠올려도 지문 독해가 매우 수월해집니다.

tip - 빌드업

이는 빌드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해준 문장입니다.

핵심을 제시한 이후, 그에 직결되는 얘기가 제시되지 않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빌드업이 진행된다는 인식을 갖춰야 합니다.

빌드업 구간은 정보를 세팅하는 용도로 글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핵심을 상기한 상태로' 제시된 정보들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ex. 15.11 신채호 지문 ⇒ 신채호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한 '아' 개념 세팅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원 모양에 가까워진다.

비례 관계가 제시되었습니다.

<초점이 가까울수록 = 원 모양 유사도 ↑>와 같이 비례 관계는 필히 정리하고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간단한 메모를 추천합니다.

타원에서 두 초점을 지나는 긴지름을 가리켜 장축이라 하는데, 두 초점 사이의 거리를 장축의 길이로 나눈 값을 이심률이라 한다.

장축의 개념과 이심률의 개념이 제시됩니다. 긴지름이 "장축"입니다. 어휘 자체를 통해 '길 장(長)'이니 당연히 장축이 긴지름이겠죠. 이렇게 장축의 의미를 파악했다면, 이심률의 정의는 공식으로 제시되었으니 공식은 정리하고 독해를 진행합니다.

$$\text{이심률} = \frac{\text{두 초점 사이 거리}}{\text{장축의 길이}}$$

- 코멘트

해당 지문에서 이심률의 정의가 정답에 직결되지는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20.11 BIS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공식은 정리하고 진행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cf) 23.09 유류분, 웹 페이지 순서 정하기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이심률은 작아진다.

또 비례 관계가 제시되었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최소한

<두 초점거리 가까울수록 = 이심률 ↓> 같이 비례 관계를 정리하고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tip - 너무 쉬운 비례 관계는 희망 사항이다.

과거처럼 a ↑ → b ↑ 수준의 단순한 비례 관계로만 지문이 서술되고 문제화되는 경우는 이제 수험생의 희망 사항 수준입니다. 최소한 a, b, c 3개 이상의 관계가 나오고 이 관계도 단순히 한 문장, 문단에 국한되지 않고 앞 문단에서 말한 비례 관계와 뒷 문단의 비례 관계가 연결되어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면 지문 이해도, 문제를 풀 수도 없는 수준까지 올라온 게 현재 시험의 수준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게 비례 관계를 대할 때 당장 주어진 문장에만 국한되어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아닌, 앞서 제시된 정보와의 연결을 통한 관계의 확장까지 이어나가는 것을 연습하시길 권장합니다.

해당 지문의 경우도

<초점이 가까울수록 = 원 모양 유사도 ↑>

<두 초점거리 가까울수록 = 이심률 ↓>

초점거리로 비례 관계가 연결됩니다. 이와 같이 지문에 제시된 비례 관계를 스스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코멘트

이와 같이 비례 관계를 연결하는 것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비례 관계는 간단하게 메모, 최소한 표시라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달은 지구를 한 초점으로 하면서 이심률이 약 0.055인 타원 궤도를 돌고 있다.

달이 이심률 0.055인 타원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우리 글의 핵심을 읽으면 안 됩니다. 우리 글의 핵심은 달이 크게 보이는 현상의 원인입니다.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면, 앞선 정보 세팅이 끝나고 화제에 대해 서술될 것임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궤도(달의 공전 궤도)의 장축 상에서 지구로부터 가장 먼 지점을 '원지점', 가장 가까운 지점을 '근지점'이라 한다.

어휘 자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죠? 달의 공전 궤도 장축에서 먼 게 원지점, 가까운 게 근지점입니다. 이 정도 개념은 어휘 자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구에서 보름달은 약 29.5일 주기로 세 천체가 '태양-지구-달'의 순서로 배열될 때 볼 수 있는데, 이때 보름달이 근지점이 나 그 근처에 위치하면 슈퍼문이 관측된다. 슈퍼문은 보름달 중 크기가 가장 작게 보이는 것보다 14% 정도 크게 보인다.

우리 화제에 대한 답이 제시됩니다. 태양-지구-달 순서로 배치될 때 보름달이 근지점에 있으면 슈퍼문이 관측됩니다. 여기서 실전이라면 '이게 왜?'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물음에 대한 답이니 확보는 하고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 코멘트

+ 개인적으로는 당연하게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지점이 지구로부터 가까운 지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크게 보이겠죠. 상식적인 사고로 이해하는 습관을 항상 인식합니다.

+ 14%라는 수치를 굳이 외우시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구체적 수치는 서로 비교된다면 누가 크다 작다 정도만 판단하고, 수치 자체는 돌아와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는 지구에서 본 달의 겉보기 지름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고 과정은 두 가지입니다.

1. 겉보기 지름이 달라진 게 커진 원인이구나~ 겉보기 지름이 뭐지?

⇒ 무난합니다. 이와 같이 독해해도 실전에서 부족함은 없습니다.

2. 당연히 가까워지니까 겉으로 보는 지름이 커졌겠지

⇒ 겉보기 지름이라는 어휘 자체를 통해 아예 뒷 내용까지 예상한 것이고 이렇게 이해했다면 뒷 내용은 그냥 당연한 말이 됩니다.

무조건 '2.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항상 어휘 자체를 통해 내용을 이해하는 습관과 앞선 맥락에서 의미를 파악하는 습관을 갖출 때 정보를 자연스럽게 납득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구에서 본 천체의 겉보기 지름을 각도로 나타낸 것을 각지름이라 하는데,

겉보기 지름을 각도로 나타낸 것이 각지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지문을 독해할 때 <겉보기 지름=각지름>으로 이해하며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관측되는 천체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각지름이 커진다. 예를 들어, 달과 태양의 경우 평균적인 각지름은 각각 0.5° 정도이다.

비례 관계가 제시되었습니다.

<천체 거리 가깝 - 각지름↑> 정도로는 최소한 정리하고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 코멘트

<각지름 = 겉보기 지름>입니다. 그러니 <천체 거리가 가까워지는 건 겉보기 지름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가까워지니 당연히 우리 눈에 보이는 겉보기 지름은 커질 것입니다. 비례 관계를 정리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비례 관계는 이해하며 독해를 진행하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cf) 15.06B 겉보기 밝기 지문의 내용을 알고 있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이런 맥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출에 사용된 지식은 배경지식화해야 합니다.

지구의 공전 궤도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원지점, 근지점 따라 겉보기 지름이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지시어를 잘 당겨 읽어야 합니다. 지구의 공전 궤도에서도 원지점, 근지점 따라서 겉보기 지름이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시어를 당겨 읽었으면 이후 제시되는 내용은 당연한 정보가 됩니다.

tip - 당겨 읽기

해당 부분을 독해함에 있어, 지시어를 그냥 읽은 사람과 지시어에 해당하는 내용을 당겨 읽으며 자연스럽게 내용을 이해한 사람의 차이는 이후 지문 독해 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지문 독해 시 우리는 문장 자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핵심을 확보한 독해 등을 위해 지문 해설에 작성한 것처럼(괄호 친 부분 같이) 지시어를 단순히 흘려 읽지 말고, 해당 지시어나 앞선 내용의 핵심을 '당겨 읽으며'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구 역시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로 공전하고 있으므로, 궤도 상의 지구의 위치에 따라 태양과의 거리가 다르다. 달과 마찬가지로 지구도 공전 궤도의 장축 상에서 태양으로부터 가장 먼 지점과 가장 가까운 지점을 갖는데, 이를 각각 원일점과 근일점이라 한다.

지구도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고 한 것처럼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에 따른 원일점과 근일점이 있음을 제시합니다. 앞서 지시어를 잘 당겨 읽었다면 당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의 이러한 거리 차이에 따라 일식 현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앞은 달의 슈퍼문 현상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여기서는 일식 현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거리 차이에 따라 일식 현상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핵심으로 인식하고 독해를 진행해 봅시다.

세 천체가 '태양 - 달 - 지구'의 순서로 늘어선고, 달이 태양을 가릴 수 있는 특정한 위치에 있을 때, 일식 현상이 일어난다.

일식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태양-달-지구의 순서로 달이 태양을 가린다는 일식 현상은 자연스럽게 독해가 진행됐어야 합니다.

이때 달이 근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면 대부분의 경우 태양 면의 전체 면적이 달에 의해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 일식이 관측된다. 하지만 일식이 일어나는 같은 조건에서 달이 원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면 대부분의 경우 태양 면이 달에 의해 완전히 가려지지 않아 태양 면의 가장자리가 빛나는 고리처럼 보이는 금환 일식이 관측될 수 있다.

달이 근지점에 위치하면 당연히 달의 겉보기 지름이 커집니다. 그러니 태양을 완벽하게 가리는 개기일식이 일어날 것이고 원지점에 위치하면 겉보기 지름이 작으니 완벽하게는 가리지 못하는 금환 일식이 일어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근지점과 원지점을 생각했다면 당연한 정보가 됩니다.

이러한 원일점, 근일점, 원지점, 근지점의 위치는 태양, 행성 등 다른 천체들의 인력에 의해 영향을 받아 미세하게 변한다.

지문에서 제시된 다양한 정보는 고정값이 아닌 미세하게 변하는 유동값입니다. 고정값과 유동값은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이니 당연히 확보하고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tip - 고정값과 유동 값

제시된 정보들은 '유동적인' 값입니다. 즉 변하는 것이죠. 값의 고정, 유동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은 사후적 독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후 관계식을 대할 때 앞선 개념을 통해 '고정값과 유동 값'에 대한 인식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cf) 17.06 퍼셉트론의 학습 과정

현재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은 약 0.017인데, 일정한 주기로 이심률이 변한다.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해줬습니다. 구체적 수치는 돌아와서 확인해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앞서 제시된 달의 이심률을 생각하고 달의 이심률이 지구의 이심률보다 크다는 것까지 연결하고, 지구의 이심률이 더 작으니 더 원모양에 가깝다는 것까지 연결했으면 베스트입니다.

- 코멘트

물론 실전에서 이 정도 사고 과정까지 진행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기출에서 공통된 정보를 연결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최소한 각각을 정확하게 정리해 선지 판단 시 정보를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까지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체의 다른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을 때 지구공전 궤도의 이심률만이 현재보다 더 작아지면 근일점은 현재보다 더 멀어지며 원일점은 현재보다 더 가까워지게 된다.

비례 관계가 제시되었습니다.

<이심률↓ = 근일점 멀어지고, 원일점 가까워짐>

이와 같이 정리하고 독해를 진행합니다.

이는 달의 공전 궤도 상에 있는 근지점과 원지점도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심률↓ = 근지점 멀어지고, 원지점 가까워짐>

이와 같이 비례 관계를 정리하고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천체의 다른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을 때 천체의 공전 궤도의 이심률만이 현재보다 커지면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

대놓고 반대 상황이 제시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심률이 커지면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으니

<이심률↑ = 근일점 가까워지고, 원일점 멀어짐>

이와 같이 반대 상황 비례 관계까지 정리하고 독해를 마무리했어야 합니다.

tip - 역을 생각하는 능력

이렇게 관계식이 얽혀있을 때 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경우가 나오면 그에 대한 '역'도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역'을 다루는 경우가 문제로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 지문 독해할 때 이 정도까지 가능한 독해력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안정적인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 15 수능 슈퍼문 <보기> 문제

1.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 ②

선지 판단 과정을 꼭 익히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달의 공전 궤도와 지구 공전 궤도의 원 모양 판단을 요구합니다. 우리 지문에서 원 모양 판단은 <초점이 가까울수록 = 원 모양 유사도 ↑>, <두 초점거리 가까울수록 = 이심률 ↓>에 연결된 정보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달과 지구의 이심률을 비교해야 합니다. 구체적 수치로 제시된 지구의 이심률은 0.017, 달은 0.055입니다. 즉 지구의 이심률이 더 작으므로 달의 공전 궤도보다 지구 공전 궤도가 원 모양에 더 가깝습니다.

나머지 선지

① : 원일점, 근일점, 원지점, 근지점의 위치는 태양, 행성 등 다른 천체들의 인력에 의해 영향을 받아 미세하게 변합니다.

③ : <각지름 ≙ 겉보기 지름>입니다. 금환 일식은 달이 태양을 완벽하게 가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지구에서 관측되는 태양의 겉보기 지름이 달의 겉보기 지름보다 큼을 의미합니다.

④ : 근지점은 지구에서 가깝고, 원지점은 지구에서 멉니다. 당연히 근지점일 때보다 원지점일 때 지구에서 보이는 보름달의 크기가 작습니다.

⑤ : 근일점은 지구와 태양이 가까운 지점, 원일점은 먼 지점입니다. 당연히 근일점에서 관측한 태양의 각지름이 원일점에서 관측한 것보다 더 큼니다.

- 코멘트

비례 관계의 연결, <겉보기 지름 ≙ 각지름>과 같은 정보의 연결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2.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분석

조차는 지구와 달,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커진다.

조차는 1월에 가장 크고 7월에 가장 작다.

지구 공전 궤도 이심률, 지구와 달, 지구와 태양 거리만 조차에 영향을 준다.

⇒ 거리 가까우면 조차 크고, 거리 가까우면 조차 작다. 이 정도를 인식하고 선지 판단을 들어가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답 ④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만이 커지면, 근지점 가까워지고, 원지점 멀어집니다. 그러면 달이 근지점에 있을 때로 가정된 상황이라면 근지점은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조차는 커질 것이므로,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만이 커지면 A 지점에서 1월에 나타나는 조차는 변화 전의 1월보다 커집니다.

나머지 선지

① : 지구 공전 궤도 이심률에 변화도 없고, 둘 다 슈퍼문이 관측된 상황입니다. 변수는 1월과 7월뿐인데, 조차는 1월에 가장 크고 7월에 가장 작다는 것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1월에 조차가 더 큼니다.

② : 지구 공전 궤도 이심률에 변화도 없고, 둘 다 보름달이 관측된 상황입니다. 변수는 근지점과 원지점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달이 근지점에 있을 때 조차가 더 큼니다.

③ : 지구 공전 궤도 이심률에 변화도 없고, 둘 다 7월입니다. 변수는 슈퍼문과 원지점, 즉 근지점과 원지점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달이 슈퍼문일 때가 조차가 더 큼니다.

⑤ : 이심률이 더 커지면 근지점은 가까워지고, 원지점은 멀어집니다. 그러면 달이 원지점에 있을 때 조차는 변화 후가 변화 전보다 더 작습니다.

- 코멘트

<보기>에 제시된 조건(변수)를 파악하고 지문에 제시된 비례 관계와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총평

- 화제 파악
- 빌드업 (빌드업 구간 정보 정리)
- 비례 관계의 연결 & 반대 상황 추론
- 상식적 이해 & 언어 자체를 통한 이해

글의 화제를 파악하고 제시된 빌드업 구간에서 정보가 제시됐을 때 해당 정보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그 정보가 비례 관계이든 개념어 세팅이든 말이죠) 그리고 제시된 비례 관계들을 연결하고 반대 상황에 대한 추론까지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지문 설명에서 제시한 것처럼 언어 자체를 통해서나 상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납득할 수 있는 정보를 통해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2014.11A / CD 드라이브의 개념과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CD 드라이브는 디스크 표면에 조사된 레이저 광선이 반사되거나 산란되는 효과를 이용해 정보를 판독한다.

CD 드라이브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줬습니다. 표면에 레이저가 닿을 때 반사되거나 산란되는 것을 이용한답니다. 그렇다면 일단 우리는 CD 드라이브 기능에서 반사와 산란을 구분하겠다는 인식 정도를 갖추고 독해를 시작합니다.

CD의 기록면 중 광선이 흩어짐 없이 반사되는 부분을 랜드, 광선의 일부가 산란되어 빛이 적게 반사되는 부분을 피트라고 한다.

반사와 산란을 구분하겠다는 인식을 갖았으니 당연히 랜드와 피트도 구분해야 할 대상입니다. 온전한 반사가 랜드, 산란되어 양이 적은 것이 피트겠네요. 대놓고 둘을 구분해주고 있으니 우리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 코멘트

cf) 16. 06 지문 인식 기술(용선과 골)과 굉장히 흡사한 느낌입니다. 지문 초반 구분해서 제시되는 개념은 명확하게 구분하고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CD에는 나선 모양으로 돌아 나가는 단 하나의 트랙이 있는 데 트랙을 따라 일렬로 랜드와 피트가 번갈아 배치되어 있다. 피트를 제외한 부분, 즉 이웃하는 트랙과 트랙 사이도 랜드에 해당한다.

나선 모양으로 돌아나가는 트랙이 있고, 랜드와 피트는 번갈아가며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은 '트랙의 정의'입니다. 관형절 형식으로 제시된 개념으로 <트랙은 나선 모양으로 돌아 나가는 단 한 개>라는 것을 정확하게 확보하고 갔어야 합니다.

tip - 당겨 읽기 (관형절도 당겨 읽어라.)

나선 모양으로 돌아 나가는 => 트랙

이 부분을 독해함에 있어 단순히 '트랙에 랜드 피트 번갈아 있구나~'가 아닌 수식하는 관형절을 수식 받는 개념어에 당겨 읽으며, 각 개념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즉 하나로 의미를 확보하며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정 대상을 수식해주는 관형어(절)이 있다면, 대상만을 확보하며 단순히 넘어갈 것이 아니라 관형어(절)과 대상 모두를 하나의 의미로 확보해주며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부분에서 트랙의 정의를 명확하게 확보하지 않은 학생들이 첫 번째 문항 4번 선지에서 '회전?'이라는 것을 보고 혼동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CD 드라이브는 디스크 모터, 광 픽업 장치, 광학계 구동 모터로 구성된다.

CD 드라이브의 구성 요소들을 제시해줬습니다. 아마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제시되었네요. 이런 구간은 거듭 강조하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차분하게 읽으며 정보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디스크 모터는 CD를 회전시킨다. CD 아래에 있는 광 픽업 장치는 레이저 광선을 발생시켜 CD 기록면에 조사하고, CD에서 반사된 광선은 광 픽업 장치 안의 광 검출기가 받아들인다.

제시된 그림을 보면 그래도 이해가 좀 쉽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정보를 제시해주는 걸 넘어, 정보 제시와 과정 서술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스크 모터 : CD 회전 → CD 아래 광 픽업 : 광선 쏘 → 광 픽업 장치 안 검출기 : 반사된 광선 확보> 이와 같이 일단 각 단계를 끊어가며 과정과 단계 속 정보들을 정확하게 확보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광선의 경로 상에 있는 포커싱 렌즈는 광선을 트랙의 한 지점에 모으고, 광 검출기는 반사된 광선의 양을 측정하여 랜드와 피트의 정보를 읽어 낸다.

여기도 같은 느낌으로 정보 제시와 과정 서술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커싱 렌즈 : 광선 모음 → 광 검출기 : 반사 양 측정해 랜드와 피트 확인> 최소한 독해 시 이렇게 과정을 끊어가며 각 단계별 정보를 정리하며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tip - 당겨 읽기

지문 초반 구체적으로 개념을 제시해준 것은 이후 독해에서 그 개념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해당 부분을 독해함에 있어 '반사된 광선의 양'을 통해 랜드 피트를 읽어 낸다는 것을 보고 랜드가 피트보다 반사된 양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까지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랜드'의 개념은 산란 없이 모두 반사하는 것이고, '피트'는 산란 때문에 빛이 적게 반사되니까요. 이처럼 초반에 구분되어(혹은 구체적으로) 제시된 개념이 활용된다면 앞서 제시된 정보를 당겨 읽으며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독해를 잘한다는 것은 결국 '얼마나 지문을 잘 이해하며 읽었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의미를 당겨 읽는 기본적인 습관, 문단과 문단의 뜻을 당겨 읽는 독해를 지향해야 합니다.

이때 CD의 회전 속도에 맞춰 트랙에 광선이 조사될 수 있도록 광학계 구동 모터가 광 픽업 장치를 CD의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서서히 직선으로 이동시킨다.

그리고 저 속도에 맞춰 광선이 조사될 수 있게, 광학계 구동 모터가 중심에서 바깥으로 직선 이동을 해줍니다. 제시된 '그림'을 보면 조금 직관적으로 '아~ 안에서 바깥으로 쪽 오는구나~' 정도의 인식을 할 수 있겠네요.

- 코멘트

그림이 제시되면 그림을 활용합니다. 그림을 이유 없이 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tip - 빌드업

지문 시작부터 정보를 던져주더니, 1, 2문단 통으로 정보를 던져주기만 했습니다. 이런 지문은 상당히 까다롭고, 핵심 파악이 안 되니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차분하게 정보를 정리하고 뒤에 정보와 연결시킨다.'는 마인드가 해결책입니다.

결국 실전에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실제로 정보 정리 자체를 일정 수준 이상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치가 필요합니다.

cf) 20.09 향미생물 화학제 1문단

CD의 고속 회전 등으로 진동이 생기면 광선의 위치가 트랙을 벗어나거나 초점이 맞지 않아 데이터를 잘못 읽을 수 있다.

CD 회전으로 인한 문제 상황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읽은 내용이 이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를 위함이겠네요. 이 문장에서 제시된 문제 상황은 데이터 인식 오류입니다. 그런데 원인이 <트랙 이탈, 초점 오류> 두 가지입니다. 정말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문제 - 해결 구조를 독해함에 있어 '문제 - 해결'과 같이 단순한 생각을 넘어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원인에 대한 해결이 진행되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tip - 문제의 '원인' 그에 맞는 해결

지문의 구조에만 매몰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만, 글의 구조를 알고 있다면 거시적인 흐름을 잡는 것에 있어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각각의 '원인'들이 각각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파악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들(트랙 이탈, 초점 오류) 막으려면 트래킹 조절 장치와 초점 조절 장치를 제어해 실시간으로 편차를 보정해야 한다.

각 원인에 대한 해결이 제시되었습니다. 트랙 이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트래킹 조절 장치를 활용하고, 초점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점 조절 장치를 이용해야겠네요. 거듭 강조하지만 '원인'에 맞는 '해결'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tip - 어휘 자체를 통한 이해

실제로 어휘 자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납득할 부분을 납득하고 독해를 진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실전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트랙 이탈을 해결하는 것이 트래킹 조절이고, 초점 이탈을 조절하는 것이 초점 조절 장치라는 것은 거의 동어 반복 수준의 개념 설명입니다. 과학&기술 지문이 어휘가 낯설어 어휘 자체를 통한 이해가 어려운 경우도 많지만, 이 정도는 어휘 자체에서 자연스럽게 납득하며 독해를 진행하는 습관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편차 보정에는 광 검출기가 사용된다.

트래킹 조절 장치, 초점 조절 장치 모두 결과적으로는 편차를 보정합니다. 그리고 이 편차 보정에는 광 검출기가 사용된다. 만약 실전이 라면 <편차 보정 = 광 검출기> 정도만 해도 무방하지만, 분석이라면 <트래킹 조절, 초점 조절 모두 광 검출기를 통하겠군> 정도까지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 검출기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전후좌우의 네 영역으로 분할되어 있는데, 트랙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전후 영역이, 직각 방향으로 좌우 영역이 배치되어 있다.

광 검출기에 대한 정보를 또 깔아주네요. 이 정도면 이 흐름이 익숙해야 합니다. 뒤에 필요한 정보이니 깔아준 것이고 정확하게 정리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전후 좌우 영역 정도의 얘기는 상식적이니 자연스럽게 이해했어야 합니다.

이때 각 영역에 조사되는 빛의 양이 많아지면 그 영역의 출력값도 커지며 네 영역의 출력값의 합을 통해 피트와 랜드를 구별한다.

간단한 비례 관계가 나왔네요 <조사 빛 양↑ - 영역 출력값↑> 이를 통해 피트와 랜드를 구별한다면, 당연히 산란이 없는 랜드가 피트에 비해 출력값이 높겠죠? 이 역시 앞선 개념을 당겨 읽어 자연스럽게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레이저 광선이 트랙의 중앙에 초점이 맞은 상태로 정확히 조사되면 광 검출기 네 영역의 출력값은 모두 동일하다.

기본적으로 트랙 중앙에 초점이 맞으면 전후좌우 출력값이 동일하겠죠. 상식적입니다. 아마 문제 상황이 생기면 출력값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정도는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광선이 피트에 해당하는 지점에 조사될 때 트랙의 중앙을 벗어나 좌측으로 치우치면(트랙 이탈), 피트 왼편에 있는 랜드에서 반사되는 빛이 많아져 광 검출기의 좌 영역의 출력값이 우 영역보다 커진다.

'트랙 이탈'이 좌측으로 진행되면 좌측 빛이 많아지고, 좌 영역이 우 영역보다 값이 커집니다. 인식해야 할 포인트는 '트랙 이탈'이라는 문제 상황입니다. 좌측으로 쏠려서 좌측 값이 커진다는 정도는 앞선 비례 관계의 재진술 수준으로 자연스럽게 처리했어야 합니다.

이 경우(트랙 이탈) 두 출력값의 차이에 대응하는 만큼 트래킹 조절 장치를 작동하여 광 픽업 장치를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편차를 보정한다. 우측으로 치우쳐 조사된 경우에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편차를 보정한다.

트랙 중앙에 초점이 맞으면 전후좌우 출력값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트래킹 조절 장치를 통해 광 픽업 장치를 움직여 좌와 우의 출력값을 맞춰주는 것이죠. 비례 관계는 쉬운 수준이라 <'트랙 이탈'이라는 '원인'은 좌와 우의 출력값을 트래킹 조절 장치를 통해 맞춤 정도로 이해했다면 충분합니다.

한편 광 검출기에 조사되는 광선의 모양은 초점의 상태에 따라 전후나 좌우 방향으로 길어진다.

초점 상태에 따라 광선 모양이 '전후'나 '좌우'로 길어집니다. 아마 전후나 좌우로 길어지는 문제를 초점 조절 장치를 통해 해결하겠네요.

tip - 언어에 대한 민감함

과거 수능에서 %와 %p의 차이로 인해 상당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큰 차이가 없어보이지만 %와 %p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후', '좌우'영역과 전 영역 후 영역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문과 선지를 급하게 읽을 때 우리는 이를 구분하지 않는 실수를 범합니다. 평소에 언어에 대한 민감함을 의식하지 않은 사람이 시험장에서 언어에 대한 민감함을 의식하고 선지를 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평소에도 언어에 대한 민감함을 견지하시길 바랍니다.

CD 기록면과 포커싱 렌즈 간의 거리가 가까워져 광선의 초점이 맞지 않으면, 조사된 모양이 전후 영역으로 길어지고 출력값도 상대적으로 커진다. 반면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좌우 영역으로 길어지고 출력값도 상대적으로 커진다.

비례 관계가 제시되었습니다. <가까워져서 초점이 안 맞으면 : 전후 영역이 길어지고 출력값 커짐 / 멀어져서 초점 안 맞으면 : 좌우 길어지고 출력값 커짐> 가까워지면 전후 커짐, 멀어지면 좌우 커짐은 명확하게 확보하고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이때 광 검출기의 전후 영역 출력값의 합과 좌우 영역 출력값의 합을 구한 후, 그 둘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 초점 조절 장치를 이용해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CD 기록면과 가깝게 또는 멀게 이동시켜 초점이 맞도록 한다.

트래킹 조절 장치는 좌 영역과 우 영역의 차이를 보정했습니다. 그런데 초점 조절 장치는 '전후' 영역의 합과 '좌우' 영역의 합의 차이를 이용해 조절하네요. 앞선 비례 관계로 생각해 보면 '전후 영역 합'이 크면 멀리 보내겠고, '좌우 영역 합'이 크면 가깝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이 역시 앞선 정보 당겨 읽으며 비례 관계를 자연스럽게 파악하며 독해를 마무리했어야 합니다.

1. 윗글에 나타난 여러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 ④

광학계 구동 모터는 광 픽업 장치를 CD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서서히 '직선으로' 이동시킵니다.

나머지 선지

① : 초점 조절 장치를 통해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CD 기록면과 가깝게 또는 멀게 이동시켜 초점이 맞도록 이동시킵니다.

② : 포커싱 렌즈는 광선을 트랙의 한 지점에 모음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③ : 광 검출기의 출력값에 이상이 있으면 트래킹 조절 장치를 작동하여 편차를 보정합니다.

⑤ : 광 픽업 장치는 레이저 광선을 발생시켜 CD 기록면에 조사하고 CD에서 반사된 광선은 광 픽업 장치 안의 광 검출기가 받아들입니다.

- 코멘트

제시된 정보들에 대한 정리를 묻고 있습니다.

2.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 ④

렌즈의 초점이 맞지 않으면 '전후 영역'의 출력값의 합과 '좌우 영역'의 출력값의 합을 이용하여 보정합니다. '전 영역과 후 영역의 출력값 차이가 아닙니다.' 언어에 대한 민감함, 문제의 '원인' 그에 맞는 해결을 물었습니다.

나머지 선지

① : CD 드라이브는 디스크 표면에 조사된 레이저 광선이 반사되거나 산란되는 효과를 이용해 정보를 판독합니다. 그리고 CD의 회전 속도에 맞춰 트랙에 광선이 조사될 수 있도록 광학계 구동 모터가 광 픽업 장치를 CD의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서서히 직선으로 이동시킵니다. 즉 CD에 기록된 정보는 중심에서부터 바깥으로 읽습니다.

② : CD 아래에 있는 광 픽업 장치는 레이저 광선을 발생시켜 CD 기록면에 조사합니다.

③ : 랜드는 흠여짐 없이 반사되고 피트는 산란되어 빛이 적게 반사됩니다. 즉 출력값의 합은 랜드를 읽을 때 더 크게 나타납니다. <16.06 지문 인식 기술 참고>

⑤ : CD의 고속 회전으로 초점이 맞지 않아 전후나 좌우 방향으로 광선의 모양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코멘트

제시된 정보 정리, 이에 대한 당겨 읽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분석

상태 1 : 전과 후 출력값 차이 없음. 좌와 우 출력값 차이 있음. 전후 영역 합과 좌우 영역합 차이 없음.

⇒ 좌가 우보다 출력값이 큼. 이에 대해 트래킹 조절 장치를 통해 좌와 우의 값을 맞춰주면 됨.

상태 2 : 전과 후 출력값 차이 없음. 좌와 우 출력값 차이 없음. 전후 영역 합과 좌우 영역 합 차이 있음.

⇒ 전후 영역 합이 좌우 영역 합보다 크니, 초점 조절 장치를 통해 포커싱 렌즈를 멀어지게 해야 함.

답 ⑤

상태 1은 전후 영역 합과 좌우 영역 합의 차이가 없음. 그런데 상태 2는 전후 영역 합이 좌우 영역 합보다 크니, 초점 조절 장치를 통해 포커싱 렌즈를 멀어지게 해야합니다.

나머지 선지

① : 상태 1의 총량은 8이고, 상태 2의 총량은 16입니다.

② : 상태 1은 트래킹 조절 장치가 구동되어야 하고, 상태 2는 초점 조절 장치가 구동되어야 합니다.

③ : 상태 1은 트래킹 조절 장치가 구동되어야 하고, 상태 2는 초점 조절 장치가 구동되어야 합니다.

④ : 상태 1에서는 레이저 광선 트랙이 왼쪽에 치우쳐 조사됩니다. 그리고 상태 2는 가운데 조사됩니다.

총평

- 정보량이 많은 초반
- 정보 간 연결(당겨 읽기)
- 문제의 '원인' 그에 맞는 해결
- 구분할 것에 대한 구분

지문 초반 정보가 나열되는 느낌을 줄 때 이를 차분하게 정리하며 독해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확보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문제의 원인에 맞는 해결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앞선 개념을 당겨 읽어 자연스럽게 비례 관계를 파악하고, 구분할 것들을 구분하는 인식이 필요했습니다.

지문 자체가 중요한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 지문입니다. 꼭 곱씹으시길 바랍니다.

변론술을 가르치는 프로타고라스(P)에게 에우아틀로스(E)가 제안하였다. “제가 처음으로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습니다.” P는 이를 ㉠ 받아들였다.

예시를 제시하며 지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예시를 통해 지문을 시작할 때는 뭐 당겨 읽을 수 있는 것도 없으니 사실 관계만 정확하게 정리한다는(있는 그대로 독해를 진행) 인식하에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단 P에게 E가 수강료를 내는 <“조건”은 “첫 승소”>라는 정도만 잡으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E는 모든 과정을 수강하고 나서도 소송을 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그러자 P가 E를 상대로 소송하였다. P는 주장하였다. “내가 승소하면 판결에 따라 수강료를 받게 되고, 내가 지면 자네는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야 하네.” E도 맞섰다. “제가 승소하면 수강료를 내지 않게 되고 제가 지더라도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 독해하면 둘 다 말이 아주 그럴듯합니다. 이 역시 앞서 시작부터 예시가 제시되었을 때 ‘사실 관계’ 정도만 적당히 파악한다는 인식하에 독해를 진행했으면 충분합니다. <아 P의 주장과 E의 주장이 상충하네.> 정도로 정리된 상태로 독해를 진행했으면 충분합니다.

- 코멘트

cf) 17 리트 : <카르네아데스의 널> 지문 역시 이렇게 예시를 통해 글이 시작합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관계라도 정확하게 정리하며 독해를 진행한다는 인식 정도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도 이 사례(P와 E의 논쟁)는 풀기 어려운 논리 난제로 거론된다. 다만 법률가들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이 둘이 이런 논쟁을 벌이는 것은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글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그에 맞춰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우선, 이 사례의 계약이 수강료 지급이라는 효과를, 실현되지 않은 사건에 의존하도록 하는 계약이라는 점을 살펴야 한다.

우선 이 사례는 ‘효과’를 ‘실현되지 않은 사건에 의존’하는 ‘계약’입니다. 이렇게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지 않고 <수강료 지급이라는 효과> <실현되지 않은 사건에 의존하는 계약>이라고 용어를 제시하는 것이 이 구간이 빌드업 구간임을 의미합니다. 제시된 용어(개념)들을 정확하게 세팅해야 핵심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춘 상태로 독해를 진행해봅시다.

tip - 빌드업

이는 빌드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해준 문장입니다. 글의 방향성을 제시해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부터 제시되는 용어들이 이후 핵심 이해에 필요할 것으로, 제시된 용어들을 정확하게 정리하며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빌드업 구간은 정보를 세팅하는 용도로 글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핵심을 상기한 상태로’ 제시된 정보들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ex. 19.09 CDS 프리미엄 ⇒ 이를 위한 신용 위험, CDS 개념 세팅

이처럼 일정한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에 제한을 ㉡ 덧붙이는 것을 ‘부관’이라 하는데,

앞서 수강료 지급이라는 효과는 실현되지 않은 사건에 의존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효과 발생에 제한을 붙이는 것이 부관입니다. 즉 <부관 = 효과에 대한 제한>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기한’과 ‘조건’이 있다.

부관은 기한과 조건으로 나뉩니다. 즉 기한과 조건의 상위 범주가 부관이라는 것을 인식한 상태로 기한과 조건이 무엇인지 파악해 봅시다.

tip - 상위 범주 / 하위 범주

지문 독해 시 상위 범주와 하위 범주를 인식하지 않고 독해해서 상위 범주의 개념을 하위 범주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독해를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여기서 역시 기한과 조건은 부관의 하위 범주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cf) 18.09 LP : 자기 지시적 문장 중 거짓말쟁이 문장이 있음.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을 기한이라 한다. 반면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조건이다.

확실히 발생할 것에 의존하면 ‘기한’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은 ‘조건’입니다. 즉 ‘기한’은 100% 일어나는 단정적인 것이고, 조건은 일어날 수도 있는 개연적인 것입니다. 애초에 대립쌍을 이루는 용어들이 비교·대조까지 되고 있으니 기한과 조건의 개념은 확보한 상태로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tip - 단정적 / 개연적

‘불변, 완전, 모든’과 같이 100%를 표현하는 ‘단정적 표현’ + 선천적 ‘가변적, 불완전’과 같이 100%가 아님을 표현하는 ‘개연적 표현’ + 후천적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는 지문 독해 시에 핵심에 결부된 정보든, 부가적으로 제시된 정보든 응당 민감하게 처리해야 하는 표현들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범주 파악, 내용 이해에 필수적이고, 곧잘 문제화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예시로 적어놓은 표현들은 매우 일부입니다. 스스로 기출 분석을 하면서 이러한 표현들을 스스로 정리하고 그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꼭 익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효과를 발생시키면 ‘정지 조건’, 소멸시키면 ‘해제 조건’이라 ㉢ 부른다.

조건의 하위 범주들을 구분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발생될 때 정지 조건이고, 소멸되면 해제 조건입니다.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 역시 대놓고 구분되고 있는 요소입니다. 이 역시 확보하고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 코멘트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어휘를 통해 직관적으로 납득하기 힘들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발생인데 정지? 소멸인데 해제?) 확실하게 확보하고 가기 무리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만약 실전에선 “?” 하는 느낌이 든다면 돌아온다는 인식을 가지고 독해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민사 소송에서 판결에 대하여 상소, 곧 항소나 상고가 그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아서 사안이 종결되든가, 그 사안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선고되든가 하면,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다룰 길이 없어진다. 이때 판결은 확정되었다고 한다.

판결이 확정되는 조건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상소나 항고가 기한 안에 되지 않거나, 최종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은 확정됩니다. 당연히 소가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거나 대법 최종 판결이 나면 형이 확정될 것입니다.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고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확정 판결에 대하여는 '기판력(既判力)'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확정 판결에는 기판력이 인정된답니다. 그런데 '기판력'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지 않았습니. '기판력'의 개념이 내용 이해 혹은 문제 풀이에 필요하다면 반드시 불친절하게라도 서술이 될 것입니다. 이를 생각하고 독해를 진행했으면 충분합니다.

기판력이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소송에서 다룰 수 없다.

기판력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줬습니다. 기판력의 개념을 아는 것이 핵심을 이해하는 것(P와 E의 분쟁 해결)에 필요하겠네요. 기판력이 인정되면 항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보하고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해 매매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에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소송하지 못한다.

기판력이 인정될 때 항소가 불가능한 경우를 구체적 예시를 통해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계약서가 존재하지만, 제시하지 못해 판결이 확정나도 기판력을 인정받는다라는 것을 예시를 통해 이해했어야 합니다.

tip - 구체적인 예시

지문을 읽을 때 수험생들이 간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leet나 수능같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집필한 지문들은 생각 없이 작성한 글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해줬으면 그렇게 제시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문제를 위한 글인 지문의 특성상 그 이유는 이해와 문제에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특정 개념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가 등장한다면 문제화될 것을 인식하고 독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아주 사소하지만, 독해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모순되는 확정 판결이 존재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사안에 대해 모순되는 확정 판결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판력의 존재 이유입니다. 지금 이 한 문단의 내용이 길었지만, 결국 '기판력'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주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문단에서 <기판력 = 확정 판결은 항소 불가>라는 것과 구체적 예시 정도를 확보하고 갔으면 베스트입니다.

확정 판결 이후에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이 ㉔ 생겼을 때는, 그것(새로운 사정)을 근거로 하여 다시 소송하는 것이 허용된다.

확정 판결이 났지만, 새로운 사정이 생기면 다시 소송하는 것이 가능하답니다. 즉 다시 소송할 수 있는 '조건'이 제시된 것입니다. 다른 지문도 그렇지만 특히 법지문에서 '조건'은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확정돼도 소송 가능한 조건 = 새로운 사정 생김>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보하고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tip - 조건은 답을 결정한다.

다른 지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법지문에서 '조건'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다고 지문에 제시가 되었더라도 '조건'에 맞지 않는 상황이 선지에 나오면 그건 맞지 않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많은 학생들이 '조건'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 그런 선지에 남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초에 읽었을 때부터 '확정 판결이 나도 새로운 사정이라는 조건이 만족되면 소송이 가능하군.'이라는 생각을 정리한 뒤 독해를 계속 진행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런 조건문은 필히 문제에 나오니까요.

해당 지문과 문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정보량이 과하지 않고 조건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수월했기에 이렇게 독해 시 생각을 정리하지 않고 진행했어도 무리를 느끼시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보량이 많은 고난도 지문에서 이렇게 '조건'이 제시됐을 때 정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독해를 계속 진행한다면 지문에서 갑자기 상충된다 느끼는 부분이 나오고, 문제 풀이에서 낚시 선지에 걸리기 딱 좋습니다. 조건도 전제, 예외를 만드는 등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우선 딱 하나 '조건'이 나오면 생각을 정리한 뒤 독해를 진행한다는 독해 습관을 갖추시길 권장합니다.

이 경우(새로운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전과 다른 사안의 소송이라 하여 이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새로운 사정이 생긴 경우는 이전과 '다른 사안'으로 취급해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정이 생기면 다른 사안이다.>라는 것만 납득하면 앞서 새로운 사정하에서는 다시 소송하는 것이 허용된다 했으니 자연스럽게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앞말의 재진술 수준입니다.

위에서 예로 들었던 계약서는 판결 이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그 발견이 새로운 사정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일단 우리가 앞서 제시된 예시는 판결 이전에 작성된 것이라 새로운 사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계약서는 '판결 이전에 작성된 것'이라서 새로운 사정이라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새로운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는 '조건(판결 이전 작성)을 인식하며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하는 소송에서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패소한 판결이 확정된 후 시일이 흘러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집을 비워 달라는 소송을 다시 할 수 있다. 계약상의 기한이 지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비운 것을 패소한 후 '권리에 변화'가 생기면 소송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즉 판결 이후 '권리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새로운 사정으로 인정되는 조건임을 인식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역시 구체적 예시이므로, '권리에 변화'가 생기는(새로운 사정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구체적 예시임을 인식한 상태로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이렇게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 P와 E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지 따져 보자.

길고 길었습니다. 앞서 제시된 정보들을 활용해 우리의 핵심이었던 P와 E의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 해결의 '전개(과정)'를 끊어가며 독해를 마무리해 봅시다.

이 사건에 대한 소송(P가 E를 고소)에서는 조건(E의 승소)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E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면 된다.

일단 P가 E를 상대로 고소를 하면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E가 승소 판결을 받습니다. 일단 <P가 E 고소 ⇒ 조건 성취x E 승소(돈 안줘도 됨)>라는 전개를 정리하고 독해를 진행했으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판결 확정(E가 승소) 이후에 P는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다. 조건(E의 승소)이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앞서 임대인 임차인 예시를 생각해 보면 판결 이후 E의 승소라는 조건이 실현된, 즉 새로운 사정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최소한 <E 승소 ⇒ 조건 실현(새로운 사정 생김)>라는 전개는 정리하고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소송에서는 결국 P가 승소한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E가 다시 수강료에 관한 소송을 할 만한 사유가 없다. 이 분쟁은 두 차례의 판결을 ㉡ 거쳐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P가 승소한다 했으니 E가 P에게 돈을 주는 것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과정을 정리해보면

1. P가 E를 고소
2. 조건 성취 안 돼서 E 승소
3. 조건 성립(=판결 이후 새로운 사정 생김)
4. P가 다시 고소, 결국 승소.

이와 같이 소송의 전개(단계)를 명확하게 정리하며 독해를 마무리했어야 합니다.

tip - 과정 서술(예시는 정리하고 당겨 읽는다.)

과정 서술은 필연적으로 문장의 밀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독해 난도는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 서술을 다루는 문장, 문단, 지문의 경우 우선 과정을 끊어 읽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구체적 예시가 나올 경우는 예시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부터 독해가 시작된다는 점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 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 ①

승소하면 수강료를 내겠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발생하는 사실인 기한이 아닌 일어날 수도 있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애초에 대립쌍(단정/개연)으로 비교·대조된 것은 필히 확보해야 합니다.

나머지 선지

② : 기한은 장래에 확실히 발생하는 사실에 의존하고, 조건은 발생할 수도 있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즉 모두 계약상 효과를 장래 사실에 의존합니다.

③ : 해제 조건은 효과를 소멸시키는 조건입니다. 즉 해제 조건을 덧붙이면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계약상 유지되고 있는 효과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④ : 항소나 상고가 그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아서 사안이 종결되면 기판력이 적용됩니다.

⑤ : 기판력은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모순되는 확정 판결이 존재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을 전제합니다.

- 코멘트

빌드업 구간의 정보들은 이렇게 일치 문제로 자주 등장합니다.

cf) 14.11 CD드라이브 지문 문항.

## 2. ㉠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

㉠ : P와 E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지 따져 보자.

1. P가 E를 고소
2. 조건 성취 안 돼서 E 승소
3. 조건 성립(=판결 이후 새로운 사정 생김)
4. P가 다시 고소, 결국 승소.

답 ③

P는 E에게 수강료를 받으려 합니다. 즉 처음 P가 E를 고소할 때 수강료를 달라 고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 성취(E의 첫 승소)가 되지 않아 E가 승소합니다. 이후 조건(E의 승소)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P는 다시 E에게 돈을 달라고 고소하고 승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 소송에서나 두 번째 소송에서나 P가 할 청구는 수강료를 내라는 내용일 것입니다.

나머지 선지

① : 첫 소송에서 P가 계약이 유효하다 주장한다면, 애초에 'E가 첫 승소 시' 라는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서 수강료를 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즉 P는 첫 소송에서 계약이 유효하지 않으니 돈을 달라고 할 것입니다.

② : 첫 소송은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E가 승리합니다. 즉 수강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내용이 실릴 것입니다.

④ : 두 번째 소송에서는 E가 첫 승소라는 조건을 달성한 상태입니다.

⑤ : 첫 소송 이후 조건이 성취된 두 번째 소송은 '새로운 사정'이 생겨 기판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코멘트

제시된 과정을 명확하게 끊어가며 독해를 진행했으면 '답'을 고르는 생각보다 수월합니다.

3.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검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분석

(가) : 금전 빌려준 증거 못 제시 패소 후 확정

⇒ 기판력 적용됨.

(나) : 빌린 건 인정, 2015. 11. 30까지만 갚으면 됨. 확정

⇒ 기판력 적용됨. 그런데 이후 2015. 11. 30 지나면 기한 충족, 즉 새로운 사정 발생. 2015. 11. 30 이후는 기판력 적용 안 됨.

답 ⑤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해 매매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에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소송하지 못합니다. 즉 2015년 2월 15일이 갚기로 한 날짜임을 증명하는 계약서를 재판 이후에 발견했다 해도, 그것을 근거로 금전을 갚으라는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선지

① : (가)는 애초에 금전을 빌려준 근거가 없어 빌려줬다는 사실도 인정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즉 (가)는 기판력이 인정되어 더 이상 항소를 할 수 없습니다.

② :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해 매매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에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소송하지 못합니다. 이 예시와 일치하는 상황입니다.

③ : (나)의 경우 2015년 11월 30일까지는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지 않아 기판력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 11월 30일까지는 갑에게 금전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④ : 2015. 11. 30 지나면 기한 충족된 것으로 새로운 사정 발생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2015. 11. 30 이후는 기판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코멘트

구체적 예시는 언제나 문제화된다는 인식을 갖춰야 합니다.

총평

- 빌드업 구간 정보 정리 + 핵심 연결.
- 조건은 답을 결정한다.
- 구체적 예시의 문제화.

예시 상황을 정리하며 핵심을 인식했어야 합니다. 이후 빌드업 구간의 정보들을 정리하며 제시되는 조건들과 구체적 예시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앞선 정보들을 통해 제시된 핵심의 전개(과정)를 끊어가며 독해를 마무리했어야 합니다.

근대 초기의 합리론은 이성에 의한 확실한 지식만을 중시하여 미적 감수성의 문제를 거의 논외로 하였다.

근대 초기 합리론의 개념을 제시하며 합리론과 미적 감수성의 차이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합리론이 <이성에 의한 확실한 지식만>을 중시하니 합리론의 입장에서 미적 감수성은 이에 해당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하며 독해를 시작했으면 충분합니다.

**미적 감수성**은 이성과는 달리 어떤 원리도 없는 자의적인 것이어서 '세계의 신비'를 푸는 데 거의 기여하지 못한다고 ㉠ 여겼기 때문이다.

미적 감수성은 이성에 의한 확실한 지식과는 달리 원리도 없는 자의적인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앞서 합리론이 미적 감수성을 보는 관점이 구체화된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합리론이 미적 감수성을 원리도 없는 자의적인 것으로 봤다.> 정도로 정리하고 독해를 진행하면 충분합니다.

이러한 근대 초기의 합리론(미적 감수성은 원리도 없고 자의적)에 맞서 칸트는 미적 감수성을 '미감적 판단력'이라 부르면서, 이(미감적 판단력) 또한 어떤 원리에 의거하며 결코 이성에 못지않은 위상과 가치를 지닌다는 주장을 ㉡ 펼친다.

하지만 칸트의 입장에서 미감적 판단력(=미적 감수성)은 '원리에 의거'하고 이성 못지않은 가치를 보입니다. 앞서 합리론이 주장한 것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렇다면 칸트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핵심일 것으로 <어떤 원리에 의거한다 주장하는 것인지>, <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핵심으로 인식하고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 코멘트

주장이 제시되면 단순히 주장에 대한 이해만을 넘어 주장에 대한 '근거'(이유)까지를 핵심으로 인식하고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cf) 문제-해결에서 문제의 '원인'에 맞는 해결을 핵심으로 잡는 것.

이러한 작업(미적 감수성은 원리가 있고 이성에 밀리지 않는다)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그의 취미 판단 이론이다.

미적 감수성이 원리가 있고, 이성에 밀리지 않는다는 것에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취미 판단 이론입니다. 그렇다면 취미 판단 이론에 대한 이해를 통해 글의 핵심인 <어떤 원리에 의거>, <가치가 있는 이유>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취미 판단**이란, 대상의 미·추를 판정하는, 미감적 판단력의 행위이다.

취미 판단의 정의가 제시되었습니다. 대상의 미와 추를 판단하니 이는 미감적+판단력의 행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미감적 판단력이라는 어휘를 한번만 생각해본다면 자연스럽게 납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tip - 어휘 자체를 통한 이해

실제로 어휘 자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납득할 부분을 납득하고 독해를 진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실전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미감적 판단력을 <미감적+판단력>이므로 '미감에 대해 판단하는 능력 이구나~' 정도로 이해했다면, <대상의 미추를 판정=미감에 대한 판단> 정도로 납득하며 독해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어휘 자체에서 자연스럽게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은 납득한 상태로 독해를 진행하는 습관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모든 판단은 'S는 P이다.'라는 명제 형식으로 환원되는데,

모든 판단은 'S는 P이다.'라는 명제로 환원됩니다. 그렇다면 이성적 판단이든 미감적 판단이든 모두 'S는 P이다.'라는 명제로 환원될 것입니다. 항상 '모든' 등과 같은 표현에서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이성이 개념을 통해 지식이나 도덕 준칙을 구성하는 '규정적 판단'에서는 술어 P가 보편적 개념에 따라 객관적 성질로서 주어 S에 부여된다.

이성의 개념과 연관된 '규정적 판단'은 P가 '보편적' 개념으로 '객관적' 성질을 줘 S에 부여됩니다. 일단 '이성'에 근거하는 '규정적 판단'은 보편적 개념으로 객관적 성질을 추구한다는 정도는 제시된 그대로 확보해야 합니다.

- 코멘트

서술어 : 주어의 동작, 상태, 성질 등을 설명하는 역할의 문장 성분  
당연히 술어 P가 S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 부여되는 성질이 보편적 개념에 따른 객관적 성질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취미 판단에서도 P, 즉 '미' 또는 '추'가 마치 객관적 성질인 것처럼 S에 부여된다.

취미 판단에서도 객관적 성질인 것'처럼' 부여된답니다. 즉 취미 판단에서는 실제로 객관적인 성질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독해를 진행했으면 충분합니다.

tip - 객관적 / 주관적

'불변, 모든'과 같은 '단정적 표현'들 + 객관적

'가변적, 불완전'과 같은 '개연적 표현'들 + 주관적

이렇게 애초에 대립쌍을 이루는 표현들에 대해서는 지문 독해 시에 핵심에 결부된 정보든, 부가적으로 제시된 정보든 응당 민감하게 처리해야 하는 표현들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범주 파악, 내용 이해에 필수적이고, 곧잘 문제화되는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 역시 객관/주관(애초에 대립쌍)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규정적 판단은 이성적+보편적+객관적? 취미 판단은 당연히 주관적이겠군> 정도로 자연스럽게 두 대립쌍에 대한 비교 대조가 이루어집니다.

애초에 대립쌍을 이루는 어휘들에 대한 인식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실제로 취미 판단에서의 P는 오로지 판단 주체의 쾌 또는 불쾌라는 주관적 감정에 의거한다.

역시 취미 판단에서 술어는 판단 주체의 쾌 또는 불쾌인 '주관적 감정'에 의거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애초에 대립쌍을 이루는 어휘들에 대한 인식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또한 규정적 판단은 명제의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타당성을 지향하므로 하나의 개별 대상뿐 아니라 여러 대상이나 모든 대상을 묶은 하나의 단위에 대해서도 이루어진다. 이와 달리, 취미 판단은 오로지 하나의 개별 대상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이 역시 규정적 판단은 여러 대상, 모든 대상(=복수의 대상) 취미 판단은 오로지 하나의 개별 대상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애초에 대립쌍을 이루는 어휘들을 통해 둘을 비교 대조해주고 있습니다.

즉 복수의 대상을 한 부류로 묶어 말하는 것은 이미 개념적 일반화가 되기 때문에 취미 판단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취미 판단은 '하나의 개별 대상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니 복수를 묶으면 당연히 취미 판단이 될 수 없습니다. 취미 판단은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만' 진행된다는 '조건'을 반복해서 제시해준 것이므로 명확하게 확보하고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편 취미 판단은 오로지 대상의 형식적 국면을 관조하여 그것이 일으키는 감정에 따라 미·추를 판정하는 것 이외의 어떤 다른 목적도 배제하는 순수한 태도, 즉 미감적 태도를 전제로 한다.

취미 판단의 전제, 즉 조건이 추가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역시 취미 판단은 오로지 순수한 미감적 태도만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해준 것이므로 필히 확보하고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tip - 모든 비교·대조가 같은 것은 아니다.

비교·대조되는 두 쌍이 나와서 글이 전개될 때 항상 두 대상이 동등한 위치로 서술되지는 않습니다. a와 b가 동등한 위치에서 글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a라는 핵심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b를 등장시키는 경우 또한 빈번히 등장합니다.

이 지문의 역시 '규정적 판단'과 '취미 판단'을 비교하고 있지만, '규정적 판단'은 '취미 판단'의 특징을 비교하며 설명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물론 이 지문에서 '규정적 판단'에 관련된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취미 판단'이 글의 핵심이고 '규정적 판단'은 대조를 위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독해를 진행하여 문제를 푸는 것과 그냥 읽어 내려갔을 때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항상 글의 핵심을 파악하며 그에 맞게 정보를 이해하며 글을 읽는 것을 연습하시길 권장합니다.

취미 판단에는 ①대상에 대한 지식 뿐 아니라, ②실용적 유익성, ③교훈적 내용 등 일체의 다른 맥락이 ㉠ 끼어들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취미 판단에 개입되지 않아야 하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제시해줬다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이것들이 활용되어 취미 판단의 조건을 만족했는지를 물을 것입니다.

tip - 구체적인 예시

이 지문에서 굳이 개입되지 않아야 하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줬을까요? 이런 경우 독해 시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리고 문제로 출제하기 위해 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지문에서 이렇게 특정 개념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가 등장한다면 문제화될 것을 인식하고 독해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아주 사소하지만, 독해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ex. 20.09 점유 소유 지문 : 물건 중에서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산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

중요한 것은 취미 판단이 기본적으로 공동체적 차원의 것이라는 점이다.

취미 판단 = 공동체적 차원의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왜 취미 판단이 공동체적 차원의 것인지 파악한다는 인식으로 독해를 계속 이어가 봅시다.

- 코멘트

취미 판단은 개별적인 요소에 대한 탐구라는데, 기본적으로 공동체 차원의 것이라는 것을 보고 '개별적인데 공동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인 요소를 탐구해도 공동체 차원으로 환원될 수 있지만, 실전에서 납득이 안 돼 순간 당황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일단' 있는 그대로 납득하고 이후 내용을 통해 납득하겠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주장이나 물음의 '이유'를 모두 이해하며 독해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어렵다면 일단 제시된 대로 '납득'하고 독해를 진행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순수한 미감적 태도를 취할 때, 취미 판단의 주체들은 미감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구성원들 간에는 '공동감'이라 불리는 공동의 미적 감수성이 전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취미 판단이 공동체 차원의 것인 이유를 제시해줬습니다. '공동감'이라는 공동의 미적 감수성의 전제로 작동합니다. <공동감을 통해 미감적 공동체가 이루어진다.> 정도로 납득하고 독해를 진행했으면 충분합니다.

이때 공동감은 취미 판단의 미적 규범 역할을 한다. 즉 공동감으로 인해 취미 판단은 규정적 판단의 객관적 보편성과 구별되는 '주관적 보편성'을 ㉡ 지니는 것으로 설명된다.

우리 글의 핵심 중 하나인 <미감적 판단력이 어떤 원리에 의거>하는 지에 대한 답이 제시되었습니다. 취미 판단이 공동감이라는 미적 규범(≒ 원리)이 있기에, 주관적 보편성을 지닐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핵심에 직결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필히 확보하고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주체가 내리는 취미 판단은 그가 속한 공동체의 공동감을 예시한다.

구성원 간의 공동감이라는 원리에 근거하는 것이 취미 판단입니다. 앞선 정보를 이해했다면 자연스럽게 납득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분석(미감적 판단력의 가치를 역설)을 통해 칸트가 궁극적으로 지향한 것은 인간의 총체적인 자기 이해이다.

칸트가 미감적 판단력의 가치를 역설한 것은 인간의 총체적 자기 이해를 위함입니다. 이는 우리 글의 핵심인 <미감적 판단력이 왜 가치 있는 것인지>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정보입니다. 여기서 <미감적 판단력의 가치 = 인간 총체적인 자기 이해를 도움>임을 이해하고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tip - 당겨 읽기

해당 부분을 독해함에 있어, 지시어를 그냥 읽은 사람과 지시어에 해당하는 내용을 당겨 읽으며 자연스럽게 내용을 이해한 사람의 차이는 분명 존재합니다. 지시어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문장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문 독해 시 우리는 문장 자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핵심을 확보한 독해 등을 위해 지문 해설에 작성한 것처럼(괄호 친 부분 같이) 지시어를 단순히 흘려 읽지 말고, 해당 지시어나 앞선 내용의 핵심을 '당겨 읽으며'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얻고자 한다면, 이성뿐 아니라 미적 감수성에 대해서도 그 고유한 원리를 설명해야 한다.

<'인간은 무엇인가?' = 인간의 자기 총체적 이해>를 위해서는 미적 감수성의 원리를 설명해야 합니다. 앞서 <미감적 판단력의 가치 = 인간 총체적인 자기 이해를 도움>임을 이해했다면 자연스럽게 납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객관적 타당성은 이성의 미덕인 동시에 한계가 되기도 한다. '세계'는 개념으로는 낱낱이 밝힐 수 없는 무한한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미적 감수성은 대상을 개념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역으로 개념으로부터의 자유를 통해 세계라는 무한의 영역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여기서도 객관적 타당성과 미적 감수성을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한대로 객관적 타당성은 미적 감수성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무한한 세계를 다 밝힐 수 없는 객관적 타당성의 한계를, 비록 개념적 규정은 안 되지만, 자유를 통해 미적 감수성이 해결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개념적 규정은 안 되지만 자유를 통한 문제 해결 = 미감적 판단력의 가치 = 인간의 총체적인 자기 이해를 도움>입니다. 핵심에 직결된 정보이므로 이와 같이 이해하고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미적 감수성을 심오한 지혜의 하나로 보는 견해가 ㉔ 퍼져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그 이론적 단초를 칸트에게서 찾는 것은 그의 이러한 논변(칸트의 취미 판단 이론) 때문이다.

오늘날 미적 감수성을 바라보는 인식이 칸트의 취미 판단 이론 덕분이라는 취미 판단 이론의 의의를 밝히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의의를 제시했다는 정도를 파악하고 독해를 마무리했으면 충분합니다.

tip - 범주화

현 트렌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시된 정보들이 규정적 판단에 관한 것인지 미감적 판단력에 관한 것인지 범주화시키며, 같은 범주의 내용을 같은 범주라고 인식하며 독해를 진행하는 범주화가 이루어진 상태로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1.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 ㉔

칸트는 미적 감수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간의 총체적인 자기 이해를 지향했습니다. 즉 칸트는 미적 감수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 인간의 총체적 자기 이해에 기여한다고 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선지

㉑ : 칸트는 규범적 판단력과 미감적 판단력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㉒ : 칸트는 객관적 타당성은 이성의 미덕인 동시에 한계가 되며 그 이유로 '세계'는 개념으로는 낱말이 밝힐 수 없는 무한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칸트가 이성에 의한 지식 개념의 한계로 본 것은 무한한 '세계'를 밝힐 수 없는 것이지, 객관적 타당성을 결여한다고 본 것이 아닙니다.

㉓ : 칸트는 취미 판단이 객관적 보편성과 구별되는 주관적 보편성을 지닌다고 설명합니다.

㉔ : 칸트는 근대 초기의 합리론에 대한 반박을 진행하는 것이지 근대 초기의 합리론을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 코멘트

핵심을 정확하게 확보하는 것(미적 감수성의 가치)과, 당겨 읽기는 핵심입니다.

2. [A]에 제시된 '취미 판단'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 ㉑

취미 판단에는 대상에 대한 지식 뿐 아니라, 실용적 유의성, 교훈적 내용 등 일체의 다른 맥락이 끼어들지 않아야 합니다. 즉 권선징악이라는 교훈적 내용이 끼어들면 취미 판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나머지 선지

㉒ : 주어가 '이 장미'라는 개별 대상이고 '아름답다'라는 술어는 미에 해당하므로 취미 판단에 해당합니다.

㉓ : 유용하다는 실용적 유의성과 관련된 정보이므로 취미 판단 명제의 술어가 될 수 없습니다.

㉔ : '모든' 예술은 개별 대상이 아니므로 취미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㉕ : 취미 판단에서 술어는 오로지 쾌, 또는 불쾌라는 주관적 감정에 의거해야 합니다. 즉 액자식 구조로 이루어져있다는 술어로 이루어졌다면 취미 판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코멘트

취미 판단의 조건, 핵심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습니다.

3. 윗글을 통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답 ①

취미 판단은 미감적 판단력(=미적 감수성)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미적 감수성은 대상을 개념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역으로 개념으로부터의 자유를 통해 세계라는 무한의 영역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즉 개념적 규정을 통해 예술 작품에 대한 취미 판단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선지

② : 공통감은 취미 판단의 미적 규범 역할을 합니다. 즉 공통감은 미감적 공동체에서 예술 작품의 미를 판정할 보편적 규범이 될 수 있습니다.

③ : 어떤 주체가 내리는 취미 판단은 그가 속한 공동체의 공통감을 예시합니다. 즉 특정 예술 작품에 대한 취미 판단이 일치하는 것은 우연이 아닌 공동체의 공통감이 드러난 것입니다.

④ : 어떤 주체가 내리는 취미 판단은 그가 속한 공동체의 공통감을 예시합니다. 즉 예술 작품에 대한 나의 취미 판단은 내가 속한 미감적 공동체의 미적 감수성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⑤ : 취미 판단은 오로지 대상의 형식적 국면을 관조하여 그것이 일으키는 감정에 따라 미.추를 판정하는 것 이외의 어떤 다른 목적도 배제하는 순수한 태도, 즉 미감적 태도를 전제로 합니다.

- 코멘트

취미 판단의 조건, 핵심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습니다.

조남희 국어

총평

- 핵심 확보(미감적 판단의 원리, 가치)
- 비교 대조에 대한 이해(핵심을 설명하기 위한 용도)
- 대립쌍을 이루는 표현
- 범주화

기본적으로 글의 핵심인 '칸트의 취미 판단의 원리와 가치'라는 핵심을 정확하게 인식한 후 그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애초에 대립쌍을 이루는 표현을 이해하며 제시된 규정적 판단이 핵심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인식하며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무엇이 규정적 판단에 관한 정보인지, 취미 판단에 대한 정보인지 범주화하며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실제로 문항들도 <취미 판단의 가치 / 취미 판단의 조건>이라는 두 핵심을 정확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